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최 배 영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공주시 미래유산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 연구

- 공주밤을 중심으로 -

2025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예술대학원
문화산업예술학과 한국문화콘텐츠전공
이 주 연

공주시 미래유산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 연구

- 공주밤을 중심으로 -

최 배 영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5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예술대학원
문화산업예술학과 한국문화콘텐츠전공
이 주 연

인 준 서

이주연의 석사학위논문으로 인준함

2025년 6월

심사위원장 김 효 주 (인)

심 사 위 원 강 현 숙 (인)

심 사 위 원 최 배 영 (인)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예술대학원

논문개요

본 연구는 공주시 미래유산으로 지정된 공주밤의 가치를 조명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존 체험프로그램을 재구성하여 활성화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연구 목적하에 서울시 미래유산, 부산시 미래유산, 일본의 미래유산 프로젝트의 체험프로그램 사례연구와 기존 공주밤 체험프로그램에 대한 SWOT 분석을 시행하고 변 슈미트의 체험 이론을 적용하여 미래유산 공주밤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을 재구성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로는 첫째, 문헌자료를 통해 공주밤이 미래유산으로서 지닌 문화적, 경제적 가치를 고찰하고 최근 생산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확인함으로써 공주밤의 가치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체험프로그램 운영이 중요한 과제임을 파악하였다.

둘째, 서울시, 부산시, 일본의 미래유산 체험프로그램을 온라인 및 현장 조사 방법에 의거해 사례별로 분석하여 도입 배경, 운영 현황, 프로그램의 내용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미취학 아동부터 청년까지의 미래 세대를 대상으로 자발적 참여와 현장 중심의 체험을 통해 효과적인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공주시청 및 공주문화관광재단, 공주한옥마을 등 관련 기관의 공식 자료와 보도자료를 온라인을 통해 수집하고 현장 방문 조사를 병행하여 기존 공주밤 체험프로그램의 현황 파악 후 SWOT 분석을 실시한 결과, 강점으로는 현장에서 다양한 직접적인 체험이 가능한 점, 지역문화 및 식문화의 교육적 활용성, 계절과 테마에 따른 구성의 조화로우움을 들 수 있었다. 반면 약점으로는 계절과 기후에 따른 운영의 제한성, 참여도에 의존하거나 동기부여에 한계가 있는 점, 공주밤 관련 지식 제공의 부족이었다. 기회 요인으로는 2025년의 관광 트렌드, 지자체 및 학교와의 협업 가능성, 지역 콘텐츠의 활용 가능성

이 존재하였다. 위협 요인으로는 공주밤의 공급량 변동과 단순 체험 내용으로 인한 재참여 유도의 한계를 파악하였다.

넷째, 기존 공주밤 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SWOT 분석 결과에 의거해 본 연구에서는 체험프로그램을 재구성하기 위한 핵심 소재로 ‘유피 블렌딩 티 클래스’를 제안하였다. 유피는 기존 공주밤 체험프로그램을 강화·보완할 뿐만 아니라 번 슈미트의 전략적 체험 모듈과 체험제공수단의 적용이 가능한 소재로서 체험을 확장하고 몰입도를 높일 수 있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는 SWOT MIX(SO·ST·WO·WT) 전략을 바탕으로 미래유산 공주밤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 재구성의 4가지 목표를 설정하였다. 또한 매회 체험프로그램의 참여 대상으로 ‘5~10명 규모의 MZ세대’를 제시했는데 이는 사례 분석 결과와 유피 블렌딩 티 클래스의 특성 그리고 지역 활성화와의 연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었다.

여섯째, 본 연구에서 재구성한 체험프로그램은 오전에 공주한옥마을 ‘공주알밤으로 다식 만들기’, 오후에 ‘유피 블렌딩 티 클래스’를 체험하고 나서 다식과 티(tea)를 함께 시음하는 하루 일정으로 구성하였다. 진행 장소는 참여자의 접근성과 이동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공주한옥마을과 시외버스터미널 인근의 공주시 중동, 반죽동, 봉황동 일대 건물을 선정하였다. 운영 방안에는 번 슈미트의 체험제공수단에서 몰입을 돕는 요소를 적용하였다.

일곱째, 재구성된 체험프로그램의 활성화 방향으로는 계절과 기후에 따른 콘텐츠를 다양화하고, MZ세대를 겨냥한 SNS 매거진 콘텐츠 운영을 제안하였다. 행정적 측면으로는 계실리 라벤더와 같은 공주시 농산물과 연계한 자원화 모델 구축을 제시하고, 학술적으로는 유피를 소재로 하여 지속가능한 체험콘텐츠의 사례로 기능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결론적으로 공주밤은 과거와 현재를 넘어 미래 세대와 가치를 공유하는 지속가능한 공주시 미래유산으로서 확장성과 활용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재구성한 공주밤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가운데 지자체 정책과 현대 소비 트렌드에 부합하는 확장의 노력을 이행해나가야 할 것이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방법	3
II. 공주시의 미래유산과 체험프로그램	6
1. 공주시 미래유산의 개념 및 선정 배경	6
2. 공주시 미래유산으로서 공주밤의 가치	14
3. 공주시 문화도시 조성 과 체험프로그램	22
4. 선행연구	31
III. 미래유산을 활용한 국내의 체험프로그램의 사례	33
1. 서울시 미래유산 체험프로그램	33
2. 부산시 미래유산 체험프로그램	40
3. 일본 프로젝트 미래유산 체험프로그램	44
4. 사례 간 비교 분석	48
IV. 미래유산 공주밤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의 재구성	53
1. 체험프로그램의 현황 및 SWOT 분석	53
2. 체험프로그램의 재구성 토대	60
3. 체험프로그램의 재구성 내용 및 운영 방안	64
4. 체험프로그램의 활성화 방향	74

V. 결론 및 제언 82

참고문헌

ABSTRACT

표 목 차

<표 1> 2024년의 공주시 미래유산	8
<표 2> 공주시 문화도시 조성 추진전략 및 추진목표	23
<표 3> 공주시 문화도시 조성 추진전략과 공주문화관광재단 문화도시 사업 목표	24
<표 4> 문화도시공주 사업 목록(2025년 4월 기준)	25
<표 5> 제7회 겨울공주 군밤축제 체험프로그램 부스	55
<표 6> 공주밤 체험프로그램에 대한 SWOT 분석	59
<표 7> 재구성된 공주밤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의 내용	68
<표 8> 오후 프로그램 율피 블렌딩 티 클래스 교육안	68
<표 9> 재구성된 공주밤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의 운영 방안	72

그림 목 차

〈그림 1〉 공산성에서 출토된 백제 시대 밤	15
〈그림 2〉 크라운산도 밤티라미수	17
〈그림 3〉 SPC삼립 몽블랑 밤크림 카스테라	17
〈그림 4〉 메가MGC커피 가을 신메뉴	17
〈그림 5〉 해태제과 홈런볼 마룻크림	17
〈그림 6〉 2000년 공주 정안 알밤 축제	18
〈그림 7〉 2025년 겨울공주 군밤축제 포스터	18
〈그림 8〉 미국 겨울공주 군밤축제	20
〈그림 9〉 공주알밤센터	21
〈그림 10〉 아이의 손길로 만들어보는 공주 문화유산	27
〈그림 11〉 2024 공주 문화유산 야행 프로그램 안내문	27
〈그림 12〉 문화도시 간 지역벨트	28
〈그림 13〉 미래유산학당 참여학당	28
〈그림 14〉 미래유산도시페스타 웰컴투신관동	30
〈그림 15〉 미래유산학당 교육유산 박람회 ‘추억속의 책가방展’	30
〈그림 16〉 서울시 미래유산 ‘학림다방’의 동판 표식	33
〈그림 17〉 서울미래유산 스티커 여권투어 여권과 스티커	34
〈그림 18〉 윤극영 가옥 전시 모습	39
〈그림 19〉 윤극영 가옥 ‘어린이 합창반’	39
〈그림 20〉 윤극영 가옥 프로그램 발표회	39
〈그림 21〉 부산민주공원의 부산시 미래유산 표식	40
〈그림 22〉 구포국수 체험관 입구	41

<그림 23> 구포국수 체험관 제면 놀이와 맷돌 체험	42
<그림 24> 민주공원 가을 숲 체험	43
<그림 25> 부산민주공원 반나절풍류	43
<그림 26> 일본미래유산 프로젝트 홈페이지 메인	44
<그림 27> 야타이(임시 무대) 가부키	46
<그림 28> 전국 가부키 행사의 어린이 가부키 공연	46
<그림 29> 복원된 수혈 주거지	47
<그림 30> 미즈나라 묘목 파종	47
<그림 31> 2024년 서울미래유산 스티커 여권투어 완주자 기념품 안내	48
<그림 32> 부산민주공원 숲 체험 스티커북	49
<그림 33> 부산민주공원 반나절풍류 제공 물품	49
<그림 34> 2024년 12월 야와타 신사 연간 대축제	50
<그림 35> 공주한옥마을 ‘공주 알밤으로 다식 만들기’	54
<그림 36> 2025년 국내 관광 트렌드 스펙트럼(S.P.E.C.T.R.U.M.)	57
<그림 37> 공주시 이미지 조사 결과	58
<그림 38> 소책자 표지 예시	73
<그림 39> 소책자 이론 수업 자료 예시	73
<그림 40> 소책자 공주시 밤 활용 음식점 지도 예시	73
<그림 41> 국내 여행지 결정 시 정보탐색 활용 채널	75
<그림 42> ‘동구떡빵’ 리플릿	75
<그림 43> 빵 매거진 콘텐츠 ‘빵모닝’ 인스타그램	77
<그림 44> 전라도 로컬 매거진 콘텐츠 ‘거시기매거진’ 인스타그램	77
<그림 45> 매거진 콘텐츠 프로필과 게시물 예시	77
<그림 46> 체험프로그램 ‘라벤더길 나들이’	79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공주시에서 말하는 ‘미래유산’은 근현대 공주를 배경으로 시민들이 체험하거나 기억하는 사건, 인물, 이야기가 담긴 유·무형의 모든 유산을 의미하며¹⁾ 이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보존과 활용의 가치를 지닌 개념이다.

공주밤은 2025년 4월을 기준으로 선정된 공주시 미래유산 중 하나로, 지역민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지역 자원의 활용 소재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 공주시는 2025년 제25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송영월 의원이 “공주 알밤박물관을 건립하여 공주시의 정체성과 경제적 가치를 담자”고 제안하였고²⁾, 2028년에는 국제 밤산업 박람회 개최가 계획될 정도로 외부의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현재 공주밤은 지역 주민이나 방문객에게 공주시의 브랜드, 축제, 가공품 등을 통한 단순 소비 대상으로 인식되는 데 그치고 있다.

현재까지 공주밤에 관한 선행연구는 밤의 재배³⁾, 유통⁴⁾, 음식으로서의 영양과 조리⁵⁾ 그리고 지역적 활용⁶⁾에 관한 것은 있지만 미래유산으로서의 접

1) 공주시의회(2024), 『공주시 미래유산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공주시조례 제 1775호.

2) 이진용, 송영월 의원 ‘공주알밤박물관’ 건립 제안, <https://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075701> (검색일: 2025.04.24.)

3) 황명수(2000), 공주(정안)밤의 특화전략과 밤나무 품종육성 및 재배법 개선, 지역개발연구논총 8(1), pp.37-55.

4) 최경식·신인식(2000), 밤의 유통구조 개선 방안, 지역개발연구논총 8(1), pp.56-73.

5) 김선호(2016), 공주밤을 이용한 고추장의 영양 특성 및 활용 가능성,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49(5), pp.395-399.

6) 양광호(2000), 공주‘밤’을 주제로 한 관광개발방향: 정안 ‘밤마을’ 가꾸기를 중심으로, 지역개발연구논총 8(1), pp.23-36.

근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또한 국내의 미래유산 연구는 서울시나 부산시에 소재하는 미래유산의 보존 방안⁷⁾, 활용 현황⁸⁾, 제도적 문제⁹⁾ 등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콘텐츠 소재로서의 활용¹⁰⁾에 관한 연구가 일부 진행되었다. 이로 보면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적 관점하에 공주시의 미래유산으로 공주밤을 활용하고 그 가치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체험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진한 상황이어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로코노미¹¹⁾, 로컬리즘¹²⁾ 등 오늘날 지역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는 점에 주목하여 공주시 미래유산으로서 공주밤의 가치를 다각도로 고찰하고 이를 활용한 체험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체험 중심의 프로그램은 단순히 정보를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그 대상자가 수동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는 방식이 아니라 참여자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교육, 경제, 문화 등의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또한 체험프로그램은 온라인상을 통해 재가공 되어 그 범위와 영향력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미래유산과 관련된 국내외 체험프로그램의 사례와 기존 공주밤 체험프로그램의 SWOT을 분석하고 번 슈미트의 체험 이론 적용해 체험프로그램을 재구성하여 활성화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
- 7) 조은영(2016), 도시의 기억을 어떻게 보존할까?: 서울미래유산 사업의 사례연구, 문화예술경영학연구 9(2), pp.31-51.
 - 8) 신창희(2016), 서울 미래유산의 의미와 활용 유형,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 학술대회자료집, pp.268-270.
 - 9) 김정선(2024), 부산 미래유산의 제도적 한계와 가능성, 석당논총 88, pp.427-449.
 - 10) 백성지(2023), 서울 미래유산의 활용과 스토리텔링 소재 개발 연구, 문화예술경영 6, pp.17-40.
 - 11) 로코노미는 지역을 뜻하는 로컬(local)과 경제를 뜻하는 이코노미(economy)의 합성어로,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고유의 가치를 창출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리키는 신조어다(출처: 네이버 국어사전, <https://ko.dict.naver.com/ko/entry/koko/6093724e091243c796a82d7d8df13228>).
 - 12) 로컬리즘은 장소를 기반으로 로컬 주체의 참여와 협치를 통해 경제적·자립적 순환체계를 구축하고 지역다움을 창출하는 활동이나 현상을 의미한다.(출처: ‘로컬리즘 기반 지역발전 전략’, 국토연구원, https://www.krihs.re.kr/board.es?mid=a10607000000&bid=0008&act=view&list_no=391485&act=view&list_no=391485&cg_code=)

2. 연구 방법

1) 사례 연구

(1)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본 연구에서는 미래유산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의 국내외 사례를 조사하여 분석하는 사례연구를 시행한다. 구체적으로 사례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내 사례의 경우 첫째, 2025년 4월 6일을 기준으로 법제처의 자치법규에 따라 미래유산 관련 조례를 제정한 지역의 프로그램이다. 둘째, 자체적으로 미래유산 관련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지역에서 이루어진 체험프로그램이다. 셋째, 2024년에 실제로 해당 지역에서 진행된 미래유산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이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국내 사례로 2024년에 진행된 서울시 미래유산 체험프로그램 2건(‘서울미래유산 스티커 여권투어’, ‘윤극영 가족 상설프로그램’)과 부산시 미래유산 체험프로그램 2건(‘구포국수 체험관’, ‘부산민주공원 체험프로그램’)에 대해 온라인 조사와 현장 조사로 자료를 수집한다.

국외의 경우 일본의 ‘미래유산 프로젝트’를 선정한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사단법인 일본유네스코협회연맹이 주관하고 있으나 국내 미래유산과 유사한 선정 배경을 공유하고 있어¹³⁾ 비교 사례에 부합된다. 또한 국내 사례와 일관된 분석을 위해 해당 프로젝트 중 2024년에 등록된 프로젝트 2건(‘오가노 가부키 계승 프로젝트’, ‘시베쓰 유적의 매력을 세계로 전하는 프로젝트’)을 선정하여 온라인 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한다.

13) 김현정(2020), ‘서울미래유산’과 일본 ‘프로젝트 미래유산’의 한일 비교연구, 비교일본학 50, pp.28-39.

(2)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의 분석 방법으로는 사례 간 비교를 실시한다. 첫째, 각 지역에서 미래유산이 도입된 배경과 운영 현황을 분석한다. 둘째, 체험프로그램의 운영 주체, 운영 내용, 참여 대상, 진행에 활용된 홍보물 및 진행 사진 등의 자료를 주요 분석 항목으로 설정하여 비교한다. 셋째, 국내외 사례 간의 공통점을 검토하고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측면에서 참여자 특성과 참여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공주밤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의 재구성에 적용할 수 있는 요소를 탐색한다.

2) 프로그램 재구성 연구

본 연구에서는 미래유산 공주밤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을 재구성하기 위해 첫째, 2024년에 운영된 기존 공주밤 체험프로그램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공주시청 및 문화관광재단, 공주한옥마을 등 관련 기관의 공식 자료와 보도 자료를 온라인을 통해 수집하고 현장 방문 조사를 병행한다.

둘째, 기존 공주밤 체험프로그램에 대한 SWOT 분석을 시행하여 내부요인으로 강점(Strength)과 약점(Weakness), 외부 요인으로 기회(Opportunity)와 위협(Threat)을 도출한다. 이와 같은 SWOT 분석을 토대로 내·외부요인을 강화하고 보완하기 위한 체험 소재를 제안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 공주밤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을 재구성하기 위한 내용은 번 슈미트(Bernd H. Schmitt)의 체험 이론을 적용하여 전략적 체험모듈(Strategic Experiential Modules, SEMs)인 감각적(Sense), 감성적(Feel), 인지적(Think), 행동적(Act), 관계적(Relate) 체험 요소가 균형 있게 반영되도록 한다.

넷째, 재구성하는 체험프로그램의 운영 방안으로는 SWOT MIX 전략을 통해 체험프로그램의 목표를 제시한다. 체험프로그램의 대상은 사례연구의 분석 결과와 본 연구에서 제안한 체험프로그램의 소재를 고려하여 설정한다. 세부적인 운영 방안은 체험 이론의 체험제공수단을 기반으로 구체화한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 재구성한 체험프로그램의 활성화 방향은 운영적·행정적·학술적 측면으로 구분하고 체험의 대상, 지역사회, 정책 및 소비 트렌드에 부합하도록 제시한다.

II. 공주시의 미래유산과 체험프로그램

1. 공주시 미래유산의 개념 및 선정 배경

공주시 미래유산은 근현대 시기의 공주 지역을 배경으로 다수의 시민이 체험하거나 기억하는 사건, 인물 또는 이야기가 담긴 유·무형의 모든 것을 말한다. 단, 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지정된 향토유산과 근대문화유산은 제외된다. 미래유산은 다수의 시민이 다음 세대에게 전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주시 미래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유자, 보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은 후 시장이 선정한다.¹⁴⁾

공주시는 2021년 12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3차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되었다. 두 차례의 도전 끝에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된 공주시는 ‘스스로 함께하는 시민, 삶을 품은 유산, 미래기억도시 공주’를 비전으로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공주만의 문화 정체성을 확립하고 시민이 다양한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여러 과제와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다.¹⁵⁾

이에 앞서 공주시는 2021년 4월 말부터 5월 말까지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과 함께 ‘공주시 미래유산을 찾는 시민 제안 공모’를 실시하였다. 이 공모는 시민들의 기억과 감성이 담긴 생활 속 보물을 찾아 미래 세대에게 전할 문화유산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¹⁶⁾

공주시는 2021년 10월 「공주시 미래유산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조례」의

14) 공주시의회(2024), 『공주시 미래유산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공주시조례 제 1775호.

15) 공주시청, ‘제3차 법정 문화도시’ 지정 쾌거
https://www.gongju.go.kr/prog/saeolNews/sub04_02_01/view.do?newsEpctNo=13524 (검색일: 2025.04.02.)

16) 공주시청, https://www.gongju.go.kr/prog/saeolNews/sub04_02_01/view.do?newsEpctNo=12320 (검색일: 2025.05.06.)

입법을 예고한 후 동년 11월에 조례를 제정·공포하고 이를 토대로 14개의 미래유산을 선정해 나갔다.

한편, 공주시 외에 공주문화관광재단에서도 법정 문화도시 선정 이후 진행될 사업의 하나로 ‘미래기억’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미래기억’은 공주시의 역사적인 변천과 주요 사건, 인물, 활동, 사상적 흐름 등을 바탕으로 현세대 시민과 대중이 공감하고 기억과 감성을 연결하는 대상을 의미하였다.¹⁷⁾ 구체적으로 재단은 2021년 11월부터 미래기억위원회를 모집하고 미래세대에 남길 가치를 지닌 미래기억(미래유산)의 발굴·보존·연구 활동을 준비하였다. 법정 문화도시 선정 후에는 2022년까지 세 차례 더 시민공모를 진행하여 총 38건의 미래기억을 선정하였다. 이처럼 재단은 ‘미래기억도시’라는 비전하에 ‘미래기억’이라는 단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왔다. 그러나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시한 문화도시 성과 가이드에 따라 실질적인 성과 중심의 사업 운영이 요구되면서 선정된 모든 미래기억을 문화도시 사업으로 활용하기에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재단은 공주시가 선정된 미래유산 14개와 재단이 발굴한 미래기억의 내용을 함께 검토하고, ‘지속가능성’을 핵심 목표로 삼아 ‘미래’에 보다 집중하고자 했다. 또한 ‘유산’의 개념에 중점을 두고 활용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를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공주시와의 협약을 체결하여 본격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였다.¹⁸⁾

이후 2023년 5월, 재단은 공주문화도시의 비전을 ‘미래기억’에서 ‘미래유산’으로 변경하였다.¹⁹⁾ 이에 따라 재단은 공주시 및 재단이 선정한 미래유산 목록을 정리하고, ‘미래에 도달하고 전달한다’라는 방향성을 적극

17) 공주문화관광재단(2021), 『2021 문화도시 공주 미래기억 시민공모』, 공고 제2021-143호.

18) 공주문화관광재단 미래유산 담당자 전화 인터뷰, 2025.03.26.

19) 공주시청, 공주시정뉴스 제439호,

https://www.gongju.go.kr/prog/bbsArticle/BBSMSTR_00000000971/view.do?bbsId=BBSMSTR_00000000971&nttlId=B000000012419Ut0fL5j?nttlId=B000000012419Ut0fL5j (검색일: 2025.05.06.)

적으로 반영하고자 공주 관내 전문가로 구성된 공주정책미래유산위원회(교육·전통·예술유산)를 조직하였다. 위원회는 기존 목록에 대한 통합, 삭제, 수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 공주시 문화도시센터에서는 공주시가 선정한 미래유산 14개와 재단이 발굴한 미래기억 38건을 통합한 총 52개의 키워드 중 2023년에는 24개로, 2024년에는 <표 1>과 같이 18개로 재정리하여 활용하고 있다.²⁰⁾

<표 1> 2024년의 공주시 미래유산

구분		내용	지정연도
1	공주시 선정	공주 산성시장	2022
2		금학생태공원과 휴양림	2022
3		계룡산도예촌(철화분청사기)	2022
4		황금직물	2022
5		공주 하숙마을	2022
6		공주밤	2022
7		금강 자연미술 비엔날레	2022
8		공주 사랑의 노래	2022
9		백제기악과 미마지탈	2022
10	미래기억	퇴석 김인겸	2021
11		고마나루	2021
12		무령왕	2022
13		효심공원	2022
14		풀꽃문학관	2022
15		공산성	2022
16		공주 선교사 묘역	2022
17		인조임금과 인절미	2022
18		공주한옥마을	2022

20) 공주문화관광재단 문화정책팀, 공주시 미래유산 키워드 운영 관련 내용정리, 2025.03.26.

2024년 기준으로 공주시에서 선정한 18개 미래유산은 <표 1>에 제시한 바와 같다. 이 중 2022년에 공주시가 지정한 미래유산은 ‘공주 산성시장’, ‘금학생태공원과 휴양림’, ‘계룡산도예촌(철화분청사기)’, ‘황금직물’, ‘공주 하숙마을’, ‘공주밤’, ‘금강 자연미술 비엔날레’, ‘공주 사랑의 노래’, ‘백제기악과 미마지탈’로 총 9개이다. 나머지 9개는 2021년부터 공주시문화관광재단이 추진한 ‘미래기억’ 사업을 통해 선정된 ‘퇴석 김인겸’, ‘고마나루’, ‘무령왕’, ‘효심공원’, ‘풀꽃문학관’, ‘공산성’, ‘공주 선교사 묘역’, ‘인조임금과 인절미’, ‘공주한옥마을’이다.

이 가운데 ‘공주 산성시장’은 1932년에 개설된 대표적인 전통시장으로 조선 시대 공주 장과 공주약령시, 1911년 김갑순의 사설 시장으로부터 이어져 온 오랜 상업의 역사를 품고 있다. 일제 강점기 이후 지역 상업의 중심지로서 시민들의 삶과 도시 변천사를 생생하게 담아내며, 문화적·역사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현재까지도 다양한 상점과 전통 먹거리를 통해 지역주민과 방문객이 소통하는 살아있는 유산으로 기능하고 있다.²¹⁾

‘금학생태공원과 휴양림’은 1923년 충남 최초로 수돗물을 공급한 금학동 수원지에서 비롯되었다. 근대 이후 생태공원으로 조성되면서 자연 친화적인 휴식 공간으로 바뀌어 근대의 흔적과 현대적 공원이 공존하는 유산이다. 수돗물 공급의 역사성과 도시 생활의 기반이 되었던 장소로서, 지역 근대화의 상징성을 지닌다. 오늘날에도 시민들의 일상과 맞닿은 공간으로 활용되며, 공주의 생활과 환경의 역사가 함께 어우러진 의미 있는 장소로 평가된다.²²⁾

‘계룡산 도예촌(철화분청사기)’은 도예가들이 모여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마을로, 조선 시대부터 이어져 온 계룡산 철화분청사기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 지역의 도예 문화를 보존하고 알리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

21) 공주시청(2022), 『공주시 미래유산 선정 고시』, 공주시 고시 제2022-117호. p.1.

22) 앞의 문서, 공주시 고시 제2022-117호, pp.1-2.

여 왔으며, 장인정신과 예술적 가치를 현대적으로 해석해 내는 창조적 공간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전통과 현대를 잇는 문화예술 공간으로서 특히 도예 체험과 전시, 작가 교류 등이 활발히 이루어지며 공예 유산의 교육적·문화적 확산에도 기여하고 있다.²³⁾

‘황금직물’은 1953년 설립되어 현재까지 운영 중인 섬유업체로, 1990년대 공주시의 제조업을 대표하던 유구읍의 섬유산업을 상징하는 존재였다. 현재 50여 개소 남짓 남은 유구 지역 섬유 산업체 중 하나로 공주시와 유구읍의 근대 산업사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며 산업에 대한 지역의 기억과 정서를 이어주는 매개 역할을 하고 있다.²⁴⁾

‘공주 하숙마을’은 1960년대 이후 공주시 원도심에 고등교육기관이 집중되면서 학생들을 위한 하숙집이 자연스럽게 형성된 데서 비롯되었다. 당시 하숙문화는 지역 경제의 한 축을 이루었을 뿐 아니라 청년 문화와 도시 일상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해당 지역은 2014년부터 복합문화공간 ‘공주 하숙마을’로 재구성되었으며, 당시의 생활상과 도시 정체성을 문화적으로 재해석하여 지역 기억을 현재와 연결하는 상징적 장소로 자리 잡고 있다.²⁵⁾

‘금강 자연미술 비엔날레’는 1991년 한국자연미술가협회 ‘야투’가 금강과 고마나루에서 연 금강국제자연미술전에 뿌리를 두고 있다. 자연·예술·문화를 연결하는 삼각 구도를 통해 상호 유기적 발전을 모색하였으며 국내 유일의 자연미술 비엔날레로 국제적인 위상도 지니고 있다.²⁶⁾

‘공주 사랑의 노래’는 1997년 충남교향악단에서 출간한 음악 CD ‘금강의 향가’를 기반으로 변경·확장된 작품이다. 백제 문화권을 소재로 한 충청도 지역 시인들의 시에, 한국작곡가협회 대전·충남지부 소속 작곡가들

23) 앞의 문서, 공주시 고시 제2022-117호, p.2.

24) 위의 문서, 공주시 고시 제2022-117호, p.3.

25) 위의 문서, 공주시 고시 제2022-117호, pp.3-4.

26) 위의 문서, 공주시 고시 제2022-117호, pp.6-7.

이 곡을 붙인 창작 가곡이 수록되어있다. 역사와 예술을 결합한 이 작품은 공주의 정체성과 문화적 감성을 음악으로 표현한 소중한 예술유산이다.²⁷⁾

‘백제기악과 미마지탈’은 백제 궁중 기악을 포함한 백제시대의 음악과 그에 사용된 탈을 통칭하는 개념이다. 당시 중국 수양제가 장안으로 초청했을 정도로 높은 예술성과 국제적 인기를 누린 것으로 추정되나, 백제의 멸망과 함께 관련 사료가 대부분 소실되었다. 그러나 「구당서」, 「일본서기」 등의 고문헌에 그 흔적이 남아있어 우리나라 탈춤의 초기 형태로 추정되고 있다. 2004년부터 공주 지역의 예술가와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역사적 고증에 창조성을 더해 이를 재현하고 있으며, 백제 문화예술의 정체성을 되살리는 의미 있는 작업으로 평가받고 있다.²⁸⁾

‘퇴석 김인겸’은 병자호란 때 주전론을 펼쳤던 김상헌의 현손으로, 문장이 뛰어나 57세에 일본 통신사 종사관의 서기로 뽑혔다. 그가 공주에서 출발하여 11개월 동안 일본을 다녀오며 쓴 ‘일동장유가’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그의 호 ‘퇴석’은 ‘무른 돌’이란 뜻으로, 공주시 무릉동의 뿌리이다. 현재 무릉동에는 그의 묘가 있으며, 금강 변 전막에는 그의 문학업적을 기리는 가비(歌碑)가 세워져 있다.²⁹⁾

‘고마나루’는 금강과 연미산을 비롯한 백제 무령왕릉 서쪽에 있는 아름다운 명승지로 낮은 구릉지대와 금강 변 나루 일대를 포함한다. 고마나루는 공주의 옛 지명으로, ‘고마(固麻)’는 곰의 옛말이며 한자로는 ‘웅진(熊津)’으로 표기된다. 백제 문주왕이 웅진으로 천도할 당시 중요한 교통로였으며, 나당연합군의 소정방도 백제를 공격하기 위해 이곳에 주둔했다. 백제 멸망 후 웅진 도독부가 설치되며 백제 역사와 국제적 교통의 중심지 역할을 했으며, 금강의 수신(水神)에게 제사를 올리던 웅진 단 터가 남아있을 만큼

27) 앞의 문서, 공주시 고시 제2022-117호, p.7.

28) 위의 문서, 공주시 고시 제2022-117호, p.8.

29) 문화도시공주, <https://gjccc.or.kr/> (검색일: 2025.05.09.)

역사적 가치가 크다.³⁰⁾

‘무령왕’은 삼국시대 백제의 제25대 왕으로 501년부터 523년까지 재위했다. 동성왕이 시해된 후 즉위한 그는 북방정책에 집중하며 고구려와 말갈 등의 침략을 막고 대비책을 강화했다. 또한 중국 남조의 양과 외교 관계를 강화하고, 지배 귀족들의 전횡을 막기 위해 좌평제를 폐지하고 행정 체제를 22부사제로 개편했다. 백성들의 진흙에 힘쓰며 수리 시설과 호적체계를 정비해 안정적인 국가의 토대를 마련했다. 한강 유역을 고구려에 빼앗긴 후 혼란에 빠진 백제를 안정시킨 왕으로도 평가된다.³¹⁾ 송산리 고분군에 위치한 국가 문화유산 ‘무령왕릉’은 공주시의 대표적인 유적 중 하나로³²⁾ 무령왕릉 발굴 50주년을 맞이하여 무령왕 동상을 세워 그의 업적을 기리고 있다.³³⁾

‘효심공원’은 충남 공주시 중동 301에 위치하며, 효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공주 지역의 효자로 알려진 향덕과 이복의 이야기를 주제로 조성되었다. 삼국사기에 기록된 최초의 효자 향덕과 국고개 전설의 이복을 기리는 효행비와 비각이 공원의 제일 윗단에 있으며, 그 아래에는 효와 관련된 부조, 효열문, 효원탑, 효행상, 행복가족상 등 상징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다.³⁴⁾

‘풀꽃문학관’은 나태주 시인의 시 ‘풀꽃’과 그의 작품들을 통하여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공간으로, 1910년대 일본식 가옥을 개조하여 2014년 10월 17일 개관하였다. 공주시 원도심 봉황산 자락에 위치한 문학관은 전시뿐 아니라 문인 및 문인 지망생들의 교류와 강의를 진행하는 공간이다. 문학에 대한 소통의 장으로 자리 잡은 이곳은 문인들의 구심점일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문학을 접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³⁵⁾

30) 열린관광 모두의 여행, <https://access.visitkorea.or.kr/> (검색일: 2025.05.10.)

3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19017#cm_def (검색일: 2025.05.10.)

32)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19018> (검색일: 2025.05.10.)

33) 문화도시공주, <https://gjccc.or.kr/> (검색일: 2025.05.10.)

34) 문화도시공주, <https://gjccc.or.kr/> (검색일: 2025.05.10.)

‘공산성’은 백제 웅진 도읍기(475~538년)의 왕성으로, 사적 제12호로 지정된 고대 성곽이다. 성벽에는 판축 기법(고운 흙과 모래흙을 번갈아 다져서 쌓는 방법)이 사용되었고, 벽주 건물지에서는 도랑을 파고 기둥을 촘촘히 세운 후 고운 흙으로 벽을 바르는 방식이 적용되었다. 이는 백제가 고대 중국과 일본과의 문화 교류를 통해 발전시킨 백제의 토목건축 기술을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된다.³⁶⁾ 공산성은 백제 웅진 시대의 대표적인 왕성으로 높은 역사적 가치를 지니며 백제 유적 8곳과 함께 ‘백제역사유적지구’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어 그 세계적 중요성과 보편적 가치까지 인정받고 있다.³⁷⁾

‘공주 선교사 묘역’은 공주 영명고등학교(충남 공주시 중동 318번지) 강당 뒤편에 위치하며 총 5개의 묘비가 있다. 1904년 충청 구역 책임자 샤프(Rovert A. Sharp)와 여선교사 엘리스(Alice. Hammond, 사에리시)가 공주 최초의 양옥집을 짓고 이주하여 선교하였는데, 샤프가 발진티푸스에 감염되어 순직하고 이곳에 묻혔다. 나머지 묘비는 열악한 환경에서 희생된 선교사 2세의 무덤으로, 영명학교 교장을 지냈던 윌리엄스(Frank E. C. Williams, 우리암)의 두 자녀 올리브(Olive Williams)와 조지(George Z. Williams, 한국명 우광복)의 무덤과 테일러(Taylor, 대리오) 선교사의 딸 에스터(Ester M. Taylor), 아멘트(Charles C. Amendt, 안명도) 선교사의 아들 로저(Rooger Amendt)의 묘가 포함된다.³⁸⁾

‘인조임금과 인절미’는 1623년 조선 제16대 인조가 재위 중, 이괄의 난을 피해 몽진하던 과정에서 전해지는 이야기이다. 인조는 난을 피해 공주 공산으로 피난하던 중 현재의 목천리를 지나게 되었고, 이때 마을 백성인 임씨

35) 문화도시공주, <https://gjccc.or.kr/> (검색일: 2025.05.10.)

36) 공주 문화관광, https://www.gongju.go.kr/tour/sub01_01_02.do (검색일: 2025.05.10.)

37) 전갑남, <https://www.incheonin.com/news/articleView.html?idxno=94312>, 인천in (검색일: 2025.05.15.)

38) 문화도시공주, <https://gjccc.or.kr/> (검색일: 2025.05.10.)

성을 가진 백성이 배고픈 임금을 위해 떡을 올렸다. 공산성에 도착한 인조는 그 떡의 이름을 물었고, 신하는 “임씨 성을 가진 백성이 진상했다”고 대답하였다. 인조는 떡의 맛이 절미(絶味, 매우 맛있는 음식)라고 감탄하며 ‘임절미’라는 이름을 붙였고 이것이 오늘날 ‘인절미’라는 이름의 유래가 되어 전해지고 있다.³⁹⁾

‘공주한옥마을’은 전통 난방 방식인 구들장이 설치된 시설이자 환경 건축 양식으로 설계되어 외관의 아름다움과 건강함을 누릴 수 있는 힐링 명소이다. 전통 주거 문화를 체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백제 문화를 배울 수 있는 다양한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방문객들에게 즐거움을 제공한다. 또한 한옥마을 곳곳에는 휴식 공간과 들레길이 있으며 가까이에는 무령왕릉과 공산성이 있어 단순한 숙박 시설을 넘어서 문화 향유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⁴⁰⁾

2. 공주시 미래유산으로서 공주밤의 가치

공주시 미래유산으로 선정된 공주밤의 문화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문화적 가치

공주밤은 공주시의 역사적 유산, 지역 정체성, 지역문화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39) 문화도시공주, <https://gjccc.or.kr/> (검색일: 2025.05.10.)

40) 문화도시공주, <https://gjccc.or.kr/> (검색일: 2025.05.10.)

세부적으로 첫째, 역사적 유산으로서 공주밤은 200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것으로 추정된다. 낙랑 시대의 것으로 보이는 무덤에서 밤이 출토된 사실이 이를 뒷받침하며 약 1,700년 전 진나라 때 편찬된 「삼국지」의 ‘마한’ 대목에는 ‘마한에서는 굶기가 배만 한 큰 밤이 난다’는 기록이 실려 있다. 약 1550년 전인 송나라의 「후한서」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찾을 수 있다. 또한 <그림 1>은 2014년에 웅진 백제의 왕궁터로 추정되는 공산성에서 출토된 다량의 밤인데, 이로 보아 백제 시대에도 밤을 즐겨 먹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당나라 위징의 「수서」와 이연수의 「북사」에도 ‘백제에는 큰 밤이 생산되고 있다’는 기록이 있으며, 조선 시대의 「세종지리지」에는 ‘공주 지역이 밤나무 심기에 적합한 지역’이라는 기록이 실려 있다.⁴¹⁾



<그림 1> 공산성에서 출토된 백제 시대 밤

출처: 세종의 소리, <http://www.sjsori.com/news/articleView.html?idxno=71681>

(검색일: 2025.05.06.)

41) 송두범, ‘후두둑! 후두둑! 떨어지는 ‘알밤’, 어떻게 팔아야 할까’, <http://www.sjsori.com/news/articleView.html?idxno=71681>, 세종의 소리 (검색일: 2025.05.06.)

근현대에는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전국적으로 밤나무를 보급했는데, 공주시 정안면 일대 산에도 대대적으로 밤나무를 심었다. 현재 정안 지역은 차령산맥의 지형적 특성과 밤나무 생육에 적합한 기후·토질 덕분에 당도가 높고 저장성이 뛰어난 밤의 생산지로 자리 잡았으며 1,100여 농가 중 60%가 밤나무를 재배하고 있다.⁴²⁾

둘째, 지역 정체성의 측면에서 공주시와 알밤은 많은 한국인에게 자연스럽게 연상될 만큼 깊이 인식되고 있다. 실제로 공주알밤은 2020년부터 현재까지 5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임산물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그 위상을 입증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지역을 뜻하는 로컬(Local)과 경제를 뜻하는 이코노미(Economy)의 합성인 ‘로코노미(Loconomy)’의 흐름과도 맞물린다. 이는 지역의 고유 식재료나 장소를 활용한 상품과 경험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는 현상으로 공주밤 역시 다양한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그 가치를 확장하고 있다.

예를 들면 <그림 2>은 크라운제과의 ‘크라운산도 밤티라미수’이며, <그림 3>은 SPC삼립의 몽블랑 밤 디저트 2종 중 하나인 ‘몽블랑 밤크림 카스테라’이다. <그림 4>는 메가MGC커피의 2024년 가을 한정 메뉴 ‘공주 알밤으로 만든 음료 5종과 디저트 2종’ 이고, <그림 5>는 해태제과의 ‘홈런볼 마롱크림’ 제품으로 이들 모두 공주 알밤을 활용한 사례들이다.

42) 디지털공주문화대전, <https://gongju.grandculture.net/gongju> (검색일: 2025.04.17.)



<그림 2> 크라운산도 밤티라미수
출처: 크라운제과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CROWNSNS/>
(검색일: 2025.04.17.)



<그림 3> SPC삼립 몽블랑 밤크림
카스테라
출처: SPT삼립, <https://spcsamlip.co.kr/>
(검색일: 2025.05.09.)



<그림 4> 메가MGC커피 가을 신메뉴
출처: 메가커피, <https://mega-mgcoffee.com/>
(검색일: 2025.04.17.)



<그림 5> 해태제과 홈런볼 마롱크림
출처: 해태제과, <https://www.ht.co.kr/030413>
(검색일: 2025.05.09.)

셋째, 공주밤은 공주시의 정체성인 만큼 지역 축제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 있다. <그림 6>은 2000년 가을부터 시작된 ‘공주 정안 알밤축제’로⁴³⁾ 단독 행사로 열리거나 백제문화제와 연계하여 개최되기도 했다. 최근에는 겨울의 군밤 축제(그림 7)로 그 명맥이 이어지고 있다.⁴⁴⁾ 이처럼 공주밤은 매년 공주시의 축제에 꾸준히 함께하고 있어 지역민은 물론 관광객에게도 공주의 지역문화를 상징하는 요소이다. 나아가 이러한 축제는 단순한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을 넘어 체험프로그램의 기반으로 지역민에게는 공감과 애정을, 관광객에게는 차별화된 흥미를 제공한다.



<그림 6> 2000년 공주 정안 알밤 축제

출처: 공주학 아카이브,
<https://kjha.kongju.ac.kr> (검색일: 2025.05.09.)



<그림 7> 2025년 겨울공주 군밤축제 포스터

출처: 공주시청, <https://www.gongju.go.kr>
 (검색일: 2025.05.09.)

43) 디지털 문화대전 ‘축제’ 검색, <http://aks.ai/GC01701769> (검색일: 2025.04.17.)

44) 공주시청,
https://www.gongju.go.kr/prog/bbsArticle/BBSMSTR_000000000828/view.do?bbsId=BBSMSTR_000000000828&nttlId=310132 (검색일: 2025.04.17.)

2) 경제적 가치

공주밤은 공주시의 지역 정체성을 기반으로 국내외에서 산업적 가치와 브랜드 경쟁력을 지닌다. 현재 공주시에서는 2,100여개 농가가 매년 7,000톤에 달하는 밤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 밤 생산량의 약 17%를 차지한다.⁴⁵⁾ 2010년 알밤 특구로 최초 지정된 공주시는 2027년까지 네 번째 알밤 특구(충남 공주시 14개 읍·면·동 일원)로 재지정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친환경 생력화 생산기반 조성’, ‘밤 가공 상품 개발’, ‘공주밤 유통망 확대’, ‘전략적 브랜드 마케팅’ 등 다양한 특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⁴⁶⁾

2024년 열렸던 알밤박람회와 연계하여 2025년 1월 ‘겨울공주 군밤축제’, ‘대한민국 밤산업 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이 행사는 총 21만 5천 명의 관람객을 유치하였고 약 8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목표하고 있던 ‘2028년 국제 밤산업 박람회’ 개최를 위한 실질적인 동력을 확보하였다. 박람회에는 일본, 베트남 등 해외 바이어와 국내 바이어 그리고 공주, 함천, 하동, 부여 등 14개 밤 산업 관련 업체가 참여하였으며, 이를 통해 업무협약 3건과 수출 계약 1건이 이루어졌다.⁴⁷⁾

한편 <그림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주시는 2025년 1월 16일부터 4일간 미국 현지(뉴욕, 뉴저지, 캘리포니아 등 미국 동·서부 H-마트 6개 지점)에서도 ‘겨울공주 군밤축제’를 개최하였다. 이 축제에서는 공주 알밤 시식, 밤 굽기, 군밤 껍질 까기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총 2.6톤의 공주밤이 수출되어 전량 판매되었다. 이를 통해 약 5만 5,000달러(한화 약

45) 최용석, 미국서도 인기있는 공주알밤 ...2028년 ‘국제 밤산업 박람회’ 개최 추진,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50415/131417566/1>, 동아일보 (검색일: 2025.04.17.)

46) 노태영, 공주시, 중기부 알밤특구 재지정...2027년까지 489억 투입, <https://www.foodtoday.or.kr/news/article.html?no=188573>, 푸드투데이 (검색일: 2025.06.17.)

47) 조흥기, 공주시, 군밤축제&밤산업 박람회... 역대 최다 “21만 5천명” 찾았다, <https://www.cc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0255>, 충청뉴스 (검색일: 2025.05.06.)

7,9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달성하며 공주밤의 해외 시장 가능성을 입증하였다.⁴⁸⁾



<그림 8> 미국 겨울공주 군밤축제

출처: 공주시청, <https://www.gongju.go.kr> (검색일: 2025.05.09.)

공주밤은 청양, 충주와 함께 ‘정안밤’이라는 명칭으로 임산물 지리적표시⁴⁹⁾ 및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에 등록되어 있다.⁵⁰⁾ 지리적표시 등록제는 특정 지역의 우수한 지리적 특성을 반영한 농림산물 및 그 가공품을 등록하고 보호함으로써 지역 브랜드의 신뢰성과 품질을 높이고 지역산업을 육성하는데 목적이 있다.⁵¹⁾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은 품질과 명성 등에서 그 지역성과 연관된 상품임을 명시하며 해당 지역에서 생산·제조·가공한 상품임을 특허청이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보호하는 제도이다.⁵²⁾ 이와 같은 제도는 국내

48) 이용환, 공주시 미국 ‘겨울공주 군밤축제’ 성료…알밤 완판, <http://www.newstnt.com/news/articleView.html?idxno=454204>, 뉴스티엔티 (검색일: 2025.04.17.)
49) 산림청, www.forest.go.kr. (검색일: 2025.04.17.)
50) 이은파, 공주밤 ‘지리적표시단체표장’ 등록…소득증대 기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06480253?sid=101>, 연합뉴스 (검색일: 2025.05.09.)
51) 산림청, www.forest.go.kr, 생활 속의 산림 (검색일: 2025.04.17.)

에서 대표적인 유통 인증제도라고 할 수 있으며 건전한 임산물 유통 환경을 보장하는 기반이 된다.

공주시는 알밤 특구로 재지정된 이후, 공주밤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차별화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공주알밤의 율피를 활용한 사료로 사육하는 공주산 한우 암소를 ‘알밤한우’라는 자체 브랜드로 육성하고 있으며, ‘공주밤막걸리’와 함께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에 등록하였다. 이 외에도 ‘공주알밤찰싹떡’, ‘알밤율피조청’ 등 관련 신제품을 개발하고, 홍보·판매를 위한 공주알밤센터(그림 9)를 운영하고 있다.⁵³⁾ 온라인과 SNS상에서는 공주시 맛집을 검색하면 밤파이, 공주밤 와플, 알밤 모찌, 알밤 라떼 등을 언급한 관광객들의 후기를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제품별·매장별로 개성 있는 메뉴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주밤의 높은 인지도와 브랜드 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9> 공주알밤센터

본 연구자가 직접 촬영

52) 유건연, ‘영양 천궁’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됐다,

<https://www.nongmin.com/article/20240925500527>, 농민신문 (검색일: 2025.05.09.)

53) 공주시청, ‘공주시 알밤특구’, 우수 지역특구 선정...중기부 장관상 수상,

https://www.gongju.go.kr/prog/saeolNews/sub04_02_01/view.do?newsEpctNo=16859 (검색일: 2025.04.17.)

이처럼 공주밤은 미래유산으로서 문화적·경제적 가치를 지니며 그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지구 온난화와 같은 이상기후, 임업농가의 고령화, 노동력 부족, 청년층 유입 저조 등으로 임업 기반의 지속가능성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⁵⁴⁾ 따라서 공주밤의 가치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보존을 위한 관심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공주밤을 활용한 미래유산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그 가치에 대한 제고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3. 공주시 문화도시 조성과 체험프로그램

사전적 의미로 ‘체험’은 자기가 몸소 겪은 경험을, ‘프로그램’은 진행 계획이나 절차⁵⁵⁾를 뜻한다. 따라서 ‘체험프로그램’이란 참여자가 어떤 일을 몸소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된 진행 계획이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체험은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 이루어지며, 참여자의 주체적이고 주관적인 활동 속에서 객관적인 사실이나 정보가 구체화된다.⁵⁶⁾ 이 과정을 통해 참여자는 체험프로그램을 매개로 새로운 소통 체계를 형성하고 의미를 상호적으로 공유하게 된다. 즉 체험프로그램은 참여자가 역사나 환경 등의 물리적인 증거와 연관된 정보, 사고, 감정을 능동적으로 체험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계된다.⁵⁷⁾

공주시는 2019년부터 2030년까지 장기적인 비전을 바탕으로 공주시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세 가지 추진 전략으로 ‘시

54) 이건용, ‘홍작에 제값까지 못 받아 . . . 공주시 밤농가 ‘이중고’

<https://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051321> (검색일: 2025.04.30.)

55)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 (검색일: 2025.04.24.)

56) 김미선(2010), 문화체험을 활용한 도덕과 수업지도 방안: 6학년 4단원을 중심으로,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4.

57) 양명식(2011), 체험 프로그램 및 사례분석에 의한 안전체험관 계획,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4.

민문화생태계 구축’, ‘미래기억 형성’, ‘미래유산 플랫폼 이음’ 을 제시 하였다.⁵⁸⁾

〈표 2〉에서와 같이 ‘시민문화생태계 구축’ 은 시민이 문화적 실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를 위해 시민이 도시문제를 창의적으로 해석하고 주체적으로 해결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시민의 문화 자치가 실현되고 기억되는 도시를 지향한다.

‘미래기억 형성’ 은 시민의 자발적인 실천을 바탕으로 도시의 가치를 공유하고 공주시의 미래가치를 유산으로 전환함으로써 시민 각자의 미래지향적 감성과 연결되도록 한다.

‘미래유산 플랫폼 이음’ 은 문화 혁신 거점을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과 자원이 상호 연결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고 존중과 돌봄의 태도에 기반한 특성화된 실천을 유도한다. 이를 통해 공주시는 살아있는 ‘기억의 터’ 를 조성하는 지닌 도시로 발전하고자 한다.

〈표 2〉 공주시 문화도시 조성 추진전략 및 추진목표

추진전략	방향성	추진목표
시민문화생태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의 단계적 실천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선순환 시스템 구축 • 도시문제에 대한 시민 주체의 창조 활동 강화 	시민의 문화자치가 기억되는 도시
미래기억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의 자발적 실천 활동에 의한 도시가치 공유 • 도시의 미래가치를 발굴하여 유산화 	우리의 삶이 미래로 공감되는 도시
미래유산 플랫폼 이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 혁신 거점을 조성하여 상호 연결될 수 있는 구조 마련 • 존중과 돌봄의 태도에 기반한 미래 기억 특성화 	살아있는 기억의 터를 만드는 도시

출처 : 글로벌엔로컬브레인파크(2022), 『공주시 2040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공주시청.

58) 글로벌엔로컬브레인파크(2022), 『공주시 2040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공주시청.

한편 공주문화관광재단은 공주시의 풍부한 문화자원을 바탕으로 다양한 문화예술 사업을 기획·운영하며 시민의 일상 속에서 문화를 경험하고 지속 가능한 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⁵⁹⁾ 특히 재단은 시민들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정체성 강화를 위해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세대 간 소통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는 프로그램을 다방면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공주시와 독립된 기관이지만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공식 웹사이트 ‘문화도시공주’를 중심으로 관련 정보와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표 3>을 통해 앞서 살펴본 공주시 문화도시 조성 추진전략이 해당 웹사이트 ‘문화도시공주’에서 분류한 ‘문화 시스템 구축’, ‘문화 상생’, ‘문화산업화’와 구조적으로 연계됨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 공주문화재단이 ‘문화도시조성’을 위해 기획·운영한 사업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표 3> 공주시 문화도시 조성 추진전략과 공주문화관광재단 문화도시 사업목표

공주시 문화도시 조성 추진전략	공주문화관광재단 문화도시 사업목표
시민문화생태계 구축	문화 시스템 구축
미래기억 형성	문화 상생
미래유산 플랫폼 이음	문화산업화

다음의 <표 4>는 2025년 4월 기준 웹사이트 ‘문화도시공주’에 게시된 총 41개의 사업 목록을 정리한 것이다. 이 중 29개 사업은 공주시민과 관광객

59) 공주문화관광재단, <https://www.gongjuacc.or.kr/> (검색일: 2025.05.15.)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는데 19개 사업이 체험프로그램의 형태로 운영되었음을 확인하였다.⁶⁰⁾

〈표 4〉 문화도시공주 사업 목록(2025년 4월 기준)

사업 목표	사업 항목	일반인 대상	체험 프로그램
문화 도시 시스템 구 축	문화도시 조례 관리		
	공주 문화도시 연구 및 정책조사		
	공주문화관광정책 연구조사	●	
	문화도시포럼	●	
	문화도시센터 운영		
	문화예술데이터베이스 조사	●	
	문화관광정책 컨퍼런스 및 워크숍	●	
	휴먼유산 킷 양성_휴먼 전수자	●	●
	휴먼유산 킷 양성_휴먼 북 human book	●	●
	미래유산학당_예비청년 창직 지원사업	●	●
	미래유산학당_청소년 미래유산해설사: 미래유산 탐험대	●	●
	미래유산학당_미래유산 활용 테마형 코스발굴	●	●
	휴먼유산 킷 양성_미래유산활용 상품개발	●	●
	미래유산학당_문화인력 인턴십 프로그램	●	●
문화 상 생	공주문화공론장_민관문화협치회의	●	
	공주문화정책위원회 / 미래유산도시위원회		
	문화도시 간 지역벨트_전국 문화도시 간 협력 홍보 박람회 운영	●	●
	전국문화도시 협의회 업무		
	문화정책위원회_문화도시실무단		
	문화도시 간 지역벨트_지역 간 협업사업	●	●
	중간지원조직협의체 운영		
	백제역사문화권 문화도시간 협력체계구축		
	충청권 상생협력 워크숍 운영		
문화도시 간 지역벨트_문화도시 간 협업사업	●	●	
문화도시 소식지 줌인(Zoom:in)	●		

60) 문화도시공주, <https://gjccc.or.kr/> (검색일: 2025.04.27.)

	문화도시, 문화재단 회원 신규 모집	●	
	시민공유회의	●	
	문화도시 시민 모니터링단 운영	●	●
	미래유산학당_참여학당	●	●
	공주시 미래유산살롱	●	
문화 유산 업 화	공주그림상점로	●	●
	문화예술모니터링		
	소외지역 문화거점 구축	●	●
	미래유산도시페스타 문화거점구축: 웰컴투우리마을	●	●
	문화정보데이터 구축		
	문화공간 어디웨어 조성	●	●
	미래유산도시페스타 웰컴투신관동	●	●
	미래유산도시브랜딩	●	●
	미래유산학당_교육유산 박람회	●	●
	미래유산활용사업		
	문화정책위원회_미래유산도시위원회		

<표 4>에 제시한 각 추진 목표에 따라 구성된 체험프로그램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먼저 ‘문화 시스템 구축’은 지역 내 문화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전달 시스템을 확립하고 전수 인력 양성에 초점을 둔다. 예를 들어 ‘휴먼유산 끈 양성’ 사업은 공주시 미래유산에 대한 교육을 바탕으로 웹툰 제작, 상품 개발, 사업 기획 등 다양한 분야의 문화 인력을 배출하였다. <그림 10>은 그 성과 중 하나로, 양성된 참여자가 ‘아이의 손길로 만들어보는 공주 문화유산’ 체험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여 다시 공주시민을 대상으로 확산시킨 사례이다. 또한 ‘미래유산학당’은 청소년과 청년층을 주요 대상으로 하여 이들이 자신만의 방식과 시각으로 지역 문화를 해석하고 전달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그림 11>은 그 성과로, 청소년 대상 미래유산 해설사 양성 과정을 통해 교육받은 학생들이 실제 2024년 공주시 지역 행사에서 방문객을 대상으로 해설을 제공했던 사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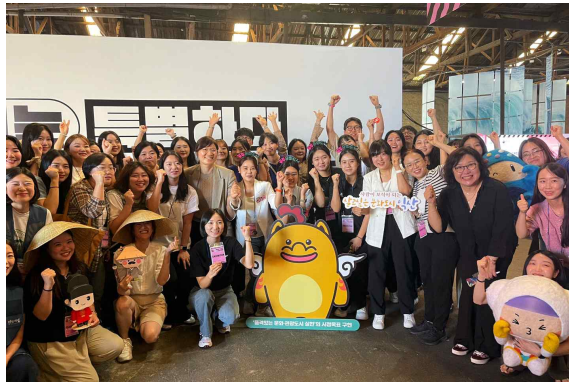


<그림 10> 아이의 손길로 만들어보는 공주 문화유산
출처: 문화도시공주, <https://gjccc.or.kr/> (검색일: 2025.04.27.)



<그림 11> 2024 공주 문화유산 야행 프로그램 안내문
출처: 문화도시공주, <https://gjccc.or.kr/> (검색일: 2025.04.27.)

두 번째 목표인 ‘문화 상생’은 둘 이상이 서로 복돋우며 함께 성장한다는 상생의 의미처럼 지역민부터 외래 관광객까지 미래유산을 매개로 문화를 공유하는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예를 들어 ‘문화도시 간 지역벨트’는 <그림 12>와 같이 공주를 비롯해 제주, 부산 등의 여러 문화도시 간 자원을 공유하고 박람회와 포럼 등 네트워킹을 통해 도시를 홍보하고 상호 보완적 관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미래유산학당 참여학당’ (그림 13)은 문화도시 조성 사업에 대해 교육하고 실무자 간 연계를 통해, 매년 10~15명의 ‘문화도시 시민 모니터링단’을 선발하여 결과 보고를 진행하였다.



<그림 12> 문화도시 간 지역벨트

출처: 문화도시공주, <https://gjccc.or.kr/> (검색일: 2025.04.27.)



<그림 13> 미래유산학당 참여학당

출처: 문화도시공주, <https://gjccc.or.kr/> (검색일: 2025.04.27.)

세 번째 목표인 ‘문화산업화’는 문화를 생산·유통·소비하는 구조를 갖춘 플랫폼 구축에 목적이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활용되었다. 예를 들어 ‘공주그림상점로’는 공주시 연고가 있는 작가의 작품을 공주시 내의 민간갤러리에서 전시하고 작품 홍보와 도록을 제작하여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제공하였다. 또한 ‘소외지역 문화거점 구축’ 사업은 면·리 단위 마을에 창작소를 설치하고 예술 교육을 시행함으로써 지역 내 문화 기반을 확대하고 문화 접근성의 격차를 줄였다. ‘웰컴투우리마을’ 사업은 이인면, 신평면, 반포면 등에 벽화 조성, 리마인드 웨딩, 투어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지역 주민과 이웃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⁶¹⁾ 이외에도 ‘미래유산도시페스타 웰컴투신관동’은 <그림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관동 대학로 거리를 배경으로 뮤지컬과 청년 중심의 버스킹 공연을 진행하였으며, ‘문화공간 어디췌어’ 사업은 일상 문화생활의 거점 공간을 발굴하여 포럼, 음감회, 쿠킹클래스 등의 일상형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생활 속 문화공간을 확립했다. ‘미래유산도시브랜딩’ 사업 공주시 미래유산을 배경으로 결혼사진 및 리마인드 웨딩 촬영을 진행하여 공주시 미래유산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하였다. 또한 <그림 15>는 ‘미래유산학당_교육유산 박람회’ 사업의 일환으로 2024년에 열린 ‘추억 속의 책가방展’이다. 이는 레트로 감성의 전시와 체험 활동을 통해 참여자 간 과거의 추억을 공유하고 문화적 기억을 확장할 수 있는 친근한 체험을 제공하였다.

이와 같이 체험프로그램은 공주시의 문화도시 조성을 구체화하는 수단으로 시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문화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공주시가 지향하는 문화도시로서의 정체성과 지속가능성 실현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61) 유튜브 ‘공주문화도시센터’, www.youtube.com/@gjccc_2021 (검색일: 2025.05.15.)



<그림 14> 미래유산도시페스타 웰컴투신관동

출처: 충남일보, <http://www.chungnam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793750> (검색일: 2025.05.16.)



<그림 15> 미래유산학당 교육유산 박람회 ‘추억속의 책가방’

출처: 동양일보, <http://www.d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49990> (검색일: 2025.05.05.)

4. 선행연구

선행연구로는 ‘공주밤’ 과 ‘국내 미래유산’ 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공주밤과 관련된 선행연구로 황명수(2000)는 공주밤의 특화전략으로서 품종 혼식을 통한 개량 및 육성이 가능한 재배방식을 제안하였다.⁶²⁾ 최경식과 신인식(2000)은 공주밤의 유통 문제점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생산 현황 및 유통, 국제 수출의 실태를 분석하였다.⁶³⁾ 김선효(2016)는 공주밤을 활용한 고추장을 개발하고, 이를 기존 고추장과 비교하여 공주밤의 영양학적 우수성과 식품 소재로서의 가치를 입증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⁶⁴⁾ 양광호(2000)는 공주시 정안지역을 ‘밤마을’ 로 조성하는 관광 개발 전략을 제시하며 공주밤을 중심으로 한 체험, 숙박, 음식 등을 주민의 참여와 결합하여 지속가능한 지역 관광 모델로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공주밤이 단순한 특산물을 넘어 지역문화 자산 및 관광자원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⁶⁵⁾

다음으로 공주시 미래유산에 관한 직접적인 선행연구는 찾아볼 수 없어 서울시와 부산시 중심으로 살펴보면 신창희(2016)는 서울시 미래유산의 개념과 활용 유형을 정리하고 시민과의 접점을 넓히기 위한 문화 기획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⁶⁶⁾ 조은영(2016)은 서울시 미래유산을 도시의 집단기억으로 보고, 미래유산을 공공적 장소로 현실 속에 재현하는 방안을 분석하였다.⁶⁷⁾

62) 황명수(2000), 공주(정안)밤의 특화전략과 밤나무 품종육성 및 재배법 개선, 지역개발연구논총 8(1), pp.37-55.

63) 최경식·신인식(2000), 밤의 유통구조 개선 방안, 지역개발연구논총 8(1), pp.56-73.

64) 김선효(2016), 공주밤을 이용한 고추장의 영양 특성 및 활용 가능성,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49(5), pp.395-399.

65) 양광호(2000), 공주'밤'을 주제로 한 관광개발방향: 정안 '밤마을' 가꾸기를 중심으로, 지역개발연구논총 8(1), pp.23-36.

66) 신창희(2016), 서울 미래유산의 의미와 활용 유형,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 학술대회자료집, pp.268-270.

67) 조은영(2016), 도시의 기억을 어떻게 보존할까?: 서울미래유산 사업의 사례연구, 문화예술경영학연구 9(2), pp.31-51.

김정선(2024)은 부산시 미래유산의 제도 형성과 운영 과정을 고찰하며 유산의 가치 해석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호성과 그로 인한 제도적 한계를 지적하였다.⁶⁸⁾ 백성지(2023)는 미래유산의 효과적인 보존 및 활용 전략으로 스토리텔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실제 적용사례와 함께 스토리텔링 개발 프로세스를 제시하였다.⁶⁹⁾

이상의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공주밤’의 농업적 가치, 식품화 가능성, 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이 연구되어왔다. 또한 서울시와 부산시의 미래유산은 제도의 개념화 및 실천적 활용 방안에 대해 다각적으로 접근이 되어왔다. 그러나 공주밤을 미래유산으로 보고, 이를 체험프로그램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주시의 미래유산인 ‘공주밤’의 가치를 전달하고 문화적 가치를 공유하는 체험프로그램의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는 지역의 미래유산을 지속하는 방식으로 활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68) 김정선(2024), 부산 미래유산의 제도적 한계와 가능성, 석당논총 88, pp.427-449.

69) 백성지(2023), 서울 미래유산의 활용과 스토리텔링 소재 개발 연구, 문화예술경영 6, pp.17-40.

Ⅲ. 미래유산을 활용한 국내외 체험프로그램의 사례

본 연구에서는 미래유산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으로 서울시의 ‘서울미래유산 스티커 여권투어’와 ‘윤극영 가옥 상설프로그램’, 부산시의 ‘구포국수 체험관’과 ‘부산민주공원 체험프로그램’, 일본의 ‘오가노 가부키 계승 프로젝트’와 ‘시베쓰 유적의 매력을 세계로 전하는 프로젝트’를 사례로 조사하였다.

1. 서울시 미래유산 체험프로그램

서울시는 가장 먼저 미래유산 정책을 도입하고 관련 제도와 시스템을 선도적으로 구축해 왔다. 2012년 시민공모로 발굴을 시작했으며, 2014년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2015년 관련 조례안을 제정했다. 2025년 4월 기준 499개의 미래유산이 선정되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선정 목록 게시, 시민들의 제안 접수, 아카이브 운영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림 16> 서울시 미래유산 ‘학림다방’의 동판 표식
본 연구자가 직접 촬영

선정된 미래유산에는 인증서와 <그림 16>과 같은 표식을 교부하고, 다양한 홍보 콘텐츠로 외부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⁷⁰⁾

1) 서울미래유산 스티커 여권투어

서울시는 2024년 7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서울시의 미래유산 25곳을 지정하고, 이 중 3곳을 여권 배부처로 선정하여 여권을 배포한 뒤 25개의 서울미래유산 스티커를 수집하는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그림 17> 서울미래유산 스티커 여권투어 여권과 스티커

출처: 문화비축기지 블로그, <https://blog.naver.com/culturetank> (검색일: 2025.05.01)

투어 프로그램을 위해 선정된 미래유산 25곳의 이름과 설명⁷¹⁾은 다음과 같다. 먼저 ‘남대문교회’는 중구 퇴계로 6에 위치하며 1969년 완공된 건축가 박동진의 고딕양식 교회 작품으로 외관과 내부가 양호하게 보존되어

70) 서울미래유산, <https://futureheritage.seoul.go.kr> (검색일: 2025.05.29.)

71) 문화유산보존과(2025), 『서울 미래유산 전체 목록(2025.1.1.기준)』, 서울정보소통광장.

1950년대 석조교회 건축양식을 잘 보여준다. ‘남산도서관’은 용산구 소월로 109에 위치하며 1964년에 건축된 공공도서관이다. 이는 식민지의 교화(教化)라는 목적을 위해 설립된 경성부립도서관을 기원에 두고 있는 건축가 이해성의 작품이다. ‘돈암동 성당’은 성북구 고려대로7길 120에 위치하며 1955년 지어진 고딕양식 석조성당이다. 콜롬반외방선교회가 설립한 성당 가운데 외부 디테일이 가장 뛰어나며, 초기 한국인설계사무소가 설계한 드문 종교건축물이다. ‘손기정기념관’은 중구 손기정로 101-4에 세워졌으며 일제강점기 마라톤 영웅 손기정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1905년 설립된 양정의숙(양정고등학교의 전신)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2012년 개관한 기념관이다.

‘아르코 미술관’은 종로구 동숭길 3에 소재하며 1979년 붉은 벽돌 외관의 미술관으로 건축가 김수근의 작품이자 한국건축가협회상 수상작이다.

‘아르코 예술극장’은 종로구 대학로 8길 7에 위치하며 1981년 건축가 김수근에 의해 지어진 붉은 벽돌 외관의 문화집회시설로, 대학로 공연 문화를 이끈 다목적 공연장이다. ‘선유도공원’은 영등포구 선유로 343에 자리하며 옛 정수장 시설을 재활용해 조성한 선유도 생태공원으로 수질 정화원·수생식물원·물놀이터 등을 통해 생태교육과 자연 감상이 가능한 공간이다.

‘어린이 대공원 꿈마루’는 광진구 능동로 216에 위치하며, 1973년 개원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최초의 공원이다. ‘구로공단노동자생활체험관’은 금천구 벚꽃로 44길 17로에 소재하는데 노동자들의 주거시설인 별집을 재현하여 근현대 여공들의 생활과 문화를 보여주는 전시 공간이다.

‘양재동 화훼공판장’은 서초구 강남대로 27에 위치하며 1991년 개장한 국내 최초의 공영 화훼도매시장으로 선진 경매 시스템과 유통의 개선을 통해 화훼 산업 발전에 기여하였다. ‘옛 서울시장 공관’은 종로구 창경궁로 35길 63에 소재하며 1941년 개인 주택으로 준공되어 이후 대법원장과 서울시장 공관으로 사용되다가 2014년 한양도성 전시안내센터로 재개관하였다.

‘도로원표’는 중구 세종대로21길 52에 세워졌으며 도로의 기점·종점 또는 경과지를 표시하는 표지석이다. 이는 1914년 현 교보빌딩 앞 ‘고종황제 청경비각’ 모퉁이에 설치되었다가 1997년 현재 자리로 이동하였다. ‘홍릉숲’은 동대문구 회기로 57에 위치하였으며 조선의 26대 왕 고종과 명성황후의 묘역이었던 곳으로, 1922년 임업시험장이 설립되면서 만들어진 우리나라 최초의 수목원이다. ‘4·19혁명 기념 도서관’은 종로구 새문안로 17에 위치하며, 4·19혁명의 숭고한 이념과 역사를 알리기 위해 이기봉 부통령의 집터에 세워진 도서관이다.

‘국립서울현충원’은 동작구 현충로 210에 위치하며, 국가원수, 애국지사 등 국가 발전을 위해 명예로운 일들을 한 사람들과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장병들을 기리는 장소이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종로구 세종대로 198에 자리 잡았으며 경제기획원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있던 건물로 대한민국 경제와 문화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한국점자도서관’은 강동구 상암로4가길 32에 있으며 1969년 설립된 국내 최초 점자도서관으로 시각장애인 대상 인터넷 전자도서관 서비스를 최초로 제공하였다. ‘문학의 집’은 중구 퇴계로26길 65에 소재한 중앙정보부장들의 관저로 시대의 아픔을 간직한 네거티브 유산이다. ‘궁산땅굴’은 강서구 양천로49길 106에 위치하며 일제강점기 전쟁 수행을 위해 군수물자 저장 및 본부 용도로 조성된 지하시설로 인근 주민이 강제 동원된 아픈 역사를 지니고 있다. 현재는 역사전시관으로 조성되어 강제 징용의 실상을 알리는 근대 역사문화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통인시장’은 종로구 자하문로15길 18에 있는데 1941년 공설시장으로 시작되어 도시락 카페 ‘통(通)’(5000원으로 엽전을 받아 시장 음식을 골라 담은 뷔페형 도시락 체험)으로 유명해진 전통시장이며 약 80개 점포에서 다양한 먹거리와 즐길 거리를 판매한다. ‘홍익문고’는 서대문구 연세로 2에

위치하며 1960년 개업하여 서울 시민에게 만남의 장소로 인식되어왔으며 현재 2대째 운영 중인 서점이다. ‘국기원’은 강남구 테헤란로7길 32에 세워졌으며, 1972년 설립된 태권도 중앙도장이자 태권도 보급, 대회 주관으로 세계 168개국 태권도협회를 이끄는 세계태권도연맹 본부이다. ‘국립극장’은 중구 장충단로 59에 소재하며 1950년 건축가 이희태의 설계로 개관한 종합 민족문화센터이자 우리나라 대표극장으로 전통예술 계승과 교육·전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부루의 뜨락’은 중구 명동8나길 37-1에 자리 잡았으며 1978년 개업한 음반 가게로 영화 <접속>의 촬영 장소로 유명하다.

이상에서 살펴본 ‘서울미래유산 스티커 여권투어’는 3곳의 미래유산(‘손기정기념관’, ‘선유도 공원’, ‘도로원표’)에서 여권을 수령 할 수 있다. 스티커 배부처는 총 25곳으로 종로구 6곳, 중구 6곳, 그리고 강남구, 강동구, 강서구, 금천구, 광진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북구, 영등포구, 용산구에 각각 1곳씩 분포되어 있다. 이 중 종로구와 중구는 전체 서울시 미래유산 중 각각 90여 개 이상이 밀집된 지역으로 배부처의 밀집도 역시 이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 체험프로그램은 2021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매년 시민을 대상으로 여권에 부착할 스티커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다. 완주자에게는 기념 배지(badge)와 인증서를 제공하여 참여 동기를 높이고 자발적인 유산 향유를 유도하고 있다.

2) 윤극영 가옥 상설프로그램

미래유산 ‘윤극영 가옥’은 동요 작사·작곡가 윤극영(尹克榮, 1903~1988) 선생이 거주하던 사택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수봉로84길 5에 소재한 주거시설이다.⁷²⁾ 윤극영 선생은 일제 강점기 우리말과 문화를 지키

기 위해 창작 동요 보급에 힘쓴 인물로 음악에 대한 열정으로 일본 동경에서 성악을 전공하던 중 아동문학가 소파 방정환 선생과의 만남을 계기로 우리나라 어린이를 위한 순수한 우리 노래 창작에 매진하였다. 대표작으로는 ‘반달’, ‘까치까치 설날’, ‘고기잡이’ 등 100여 곡의 동요가 있으며 동화·수필·시 등의 창작 활동을 통해 초기 아동문학운동에도 이바지하였다.⁷³⁾

현재 윤극영 가옥은 <그림 18>과 같이 선생이 집필하던 원고와 작품을 전시하고 실제 사용하던 방을 원형에 가깝게 재현하였으며 연보와 사진 등의 기록물을 통해 방문객들에게 따뜻한 감성과 문화적 가치를 체험할 수 있게 구성되었다. 대표적인 체험프로그램으로는 기타반, 시니어 동요반, 시·그림반, 어린이 합창반이 구성되어 있으며, 시니어 동요반을 제외하고 <그림 19>와 같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2월부터 11월까지 무료로 진행되었다.⁷⁴⁾

<그림 20>은 프로그램 종료 후 개최한 ‘윤극영 가옥 프로그램 발표회’로, 윤극영 선생의 삶과 업적을 다룬 영상물을 함께 시청하며 유산으로서의 문화적 가치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고, 참가자들은 한 해 동안의 활동 결과를 공유하며 참여자 간 정서적 소통과 유대의 계기가 되었다.

72) 서울미래유산, <https://futureheritage.seoul.go.kr/> (검색일: 2025.05.06.)

73) 내셔널트러스트 문화유산기금(2014), 『반달할아버지 윤극영 소장품 도록』, 서울시 문화정책과, pp.4-9.

74) 윤극영 가옥, <https://yoonky.modoo.at/> (검색일: 2025.05.06.)



〈그림 18〉 윤극영 가옥 전시 모습
본 연구자가 직접 촬영



〈그림 19〉 윤극영 가옥
‘어린이 합창반’

출처: 윤극영 가옥, <https://yoonky.modoo.at/>
(검색일: 2025.05.06.)

〈그림 20〉 윤극영 가옥 프로그램
발표회

출처: 윤극영 가옥, <https://yoonkyhouse.com/>
(검색일: 2025.06.11.)

2. 부산시 미래유산 체험프로그램

부산시는 2019년 장기적인 문화정책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문화가 흐르는 글로벌 품격 도시 조성’을 비전으로 설정하여 ‘문화유산도시’ 전략과제를 추진하였다.⁷⁵⁾ 같은 해 11월 부산광역시 미래유산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12월에는 미래유산 보존위원회를 통해 20건을 최초 선정하였다.⁷⁶⁾ 이후 지속적인 확대를 통해 2025년 4월을 기준 59개의 미래유산이 지정되었으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선정 목록과 시민 제안 등을 공유하고 있다. 또한 선정된 미래유산에는 인증서와 표식(그림 21)을 전달하고, 답사프로그램 등의 활용 사업을 추진하여 그 가치와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⁷⁷⁾



〈그림 21〉 부산민주공원의 부산시 미래유산 표식
본 연구자가 직접 촬영

75) 김동찬, ‘부산만의 문화 분야 6개 주요 전략과제 추진: 민선 7기 문화정책, 이제부터 시작이다’ <https://www.busan.go.kr/nbtnews/1357732>, 부산광역시 (검색일: 2025.05.06.)

76) 김은영, “시민의 정서적 유대감과 자긍심 그리고 ‘부산’에 대한 이해도 제고: 부산시, 「제1차 부산 미래유산」 선정” <https://www.busan.go.kr/globalhubcity/news/1414851>, 부산광역시 (검색일: 2025.05.06.)

77) 부산미래유산, <https://www.busan.go.kr/futureheritage/> (검색일: 2025.05.29.)

1) 구포국수 체험관

부산시 미래유산 ‘구포국수’는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일대에서 생산되는 국수로 부산과 경상남도 지역의 향토 음식이자 잔치국수의 원형이다. 한국전쟁 시기부터 서민들 사이에서 전해져 온 음식으로 지역의 식문화와 역사를 담고 있다.⁷⁸⁾ <그림 22>에 제시된 구포국수 체험관은 2016년에 부산 북구 구포만세길 109에 개관하였으며, 주말(토·일)에 일반 방문객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평일에는 어린이집 등 단체 예약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림 22> 구포국수 체험관 입구

본 연구자가 직접 촬영

체험관의 프로그램은 <그림 23>과 같이 제면 놀이, 민속 맷돌 체험, 편백 놀이로 구성되어 있다. 참가자들은 먼저 구포국수에 관한 영상을 시청한 후, 밀가루를 반죽·숙성하여 수동 제면기를 이용해 구포국수 면을 뽑고 포장하

78) 부산미래유산, <https://www.busan.go.kr/futureheritage/> (검색일: 2025.05.29.)

는 과정을 체험한다. 이와 함께 맷돌로 밀을 갈아보는 민속 체험과 편백 큐브를 활용한 촉감 놀이도 함께 진행하였다.⁷⁹⁾

구포국수체험관은 일반인 대상으로 주말에만 운영되지만 매주 참여 후기가 게시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후기 비중이 높음을 보았을 때 유아의 감각운동 발달에 부합됨을 보여준다. 또한 식재료 기반의 안전한 소재 사용은 보호자의 만족도에도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그림 23〉 구포국수 체험관 제면 놀이와 맷돌 체험

구포국수 체험관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gupo.noodle> (검색일: 2025.05.16.)

2) 부산민주공원

부산시 미래유산인 부산민주공원은 부마 민주항쟁 20주년을 맞아 1999년 10월 16일에 개관하였다. 이 공간은 부산 시민들의 숭고한 민주 정신을 기리고 민주주의 교육장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건립되었다.⁸⁰⁾

79) 네이버블로그 ‘미호언니 수다살롱’, <https://blog.naver.com/helpmesister/223795774950>
(검색일: 2025.05.06.)

80) 부산미래유산, <https://www.busan.go.kr/futureheritage/> (검색일: 2025.05.06.)

2024년 부산민주공원에서는 다양한 공연, 전시, 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 중 공원 내에서 이루어진 체험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먼저 ‘민주항쟁기념관 상설 전시 해설’은 ‘늘펼쳐보임방’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다. ‘민주공원 스토리 투어’는 해설사와 함께 민주공원의 공간과 시설들을 탐방하며 공원의 역사와 의미를 알아보는 체험이다. ‘민주공원 봄/가을 숲 체험’은 봄(4~6월)과 가을(9~11월) 동안 시니어 숲 해설사의 안내로 민주공원 및 인근 숲의 나무와 열매를 관찰하는 활동이며, ‘민주공원 숲 스토리 투어’ (그림 24)는 민주공원의 기념식수와 관련된 이야기와 함께 계절별 식물 생태를 살펴보는 프로그램이었다. 또한 ‘민주공원 반나절 풍류’ (그림 25)는 사단법인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의 소장 작품을 컬러링하고, 부산민주공원 내 어디서나 자유롭게 소풍을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된 체험프로그램이다.⁸¹⁾



〈그림 24〉 민주공원 가을 숲 체험
부산민주공원 블로그,
https://blog.naver.com/demo_park
(검색일 :2025.05.16.)



〈그림 25〉 부산민주공원 반나절풍류
부산민주공원 블로그,
https://blog.naver.com/demo_park
(검색일 :2025.05.16.)

81) 부산민주공원, <http://www.demopark.or.kr/> (검색일 2025.05.02.)

3. 일본 프로젝트 미래유산 체험프로그램

일본의 공익사단법인인 일본유네스코협회연맹(Japan Federation of UNESCO Associations)은 NGO 단체로서 ‘프로젝트 미래유산’이라는 미래유산 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림 26>과 같이 연맹 공식 홈페이지 내에서 관련 내용을 운영하고 있다. 이 단체는 2009년부터 2024년까지 총 14차에 걸쳐 매년 10개 이하의 프로젝트 미래유산을 선정해왔으며, 2025년 4월 기준 총 87건의 프로젝트가 등록되어 있다.⁸²⁾



<그림 26> 일본미래유산 프로젝트 홈페이지

출처: 일본유네스코협회연맹(公益社団法人 日本ユネスコ協会連盟),
<https://www.unesco.or.jp/> (검색일 :2025.05.17.)

‘프로젝트 미래유산’은 그 명칭에도 드러나듯, 우리나라의 미래유산과는 달리 문화재나 자연환경 자체보다 이를 보호하고 계승하기 위한 시민들의 ‘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⁸³⁾ 따라서 이미 문화재로

82) 일본유네스코협회연맹(公益社団法人 日本ユネスコ協会連盟), <https://www.unesco.or.jp/> (검색일: 2025.04.12.)

83) 김현정(2020), ‘서울미래유산’과 일본 ‘프로젝트 미래유산’의 한일 비교연구, 비교일본학

지정된 대상도 포함할 수 있으며, 심사 기준에서도 이러한 성격이 반영된다. 특히 심사 기준 중에는 ‘차세대 육성’ (어린이와 청년 등 차세대의 참여를 포함하는 것)과 ‘지역 활성화’ (개인이나 기업 등 제3자의 참가를 통해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가 포함된 점에서 지역과 세대 간 연계와 공유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⁸⁴⁾

1) 오가노 가부키 계승 프로젝트

사이타마현 지정 무형민속문화재인 오가노 가부키는 에도 시대 말기에 지치부군 오가노정에 전해져 현재까지 6개 지역에서 전승되고 있다. <그림 27>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동식 무대인 플로트를 활용한 ‘야타이(임시무대) 가부키’가 대표적인 형태이며 이 프로젝트에서는 배우뿐만 아니라 일본의 대표적인 전통 현악기인 샤미센, 의상, 분장 등 다양한 요소가 모두 포함되었다.⁸⁵⁾ 오가노 가부키 보존회는 6개 지역의 신사 제례 공연은 물론 국내외 무대 공연에 협력하였고 어린이 가부키(그림 28), 나쿠라 여성 가부키, 초중학교 가부키 교실 등 많은 단체와의 연계프로그램이 있어 전승과 후계자 육성에 힘쓰고 있었다. 정기 공연은 3월, 4월, 5월, 10월, 11월, 12월에 걸쳐 이루어지며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오가노 가부키를 경험하였다. 특히 젊은 세대가 지도자의 역할을 맡아 활동하는 등 지속가능한 계승 체제를 확립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해당 지역을 ‘가부키 마을’로 육성해 나가고 있었다.⁸⁶⁾

50, pp.28-39.

84) 公益社団法人日本ユネスコ協会連盟(2024), 『プロジェクト未来遺産2024 募集要項』, 公益社団法人日本ユネスコ協会連盟, p.2.

85) 일본유네스코협회연맹(公益社団法人 日本ユネスコ協会連盟), <https://www.unesco.or.jp/> (검색일: 2025.04.12.)

86) 일본유네스코협회연맹(公益社団法人 日本ユネスコ協会連盟), <https://www.unesco.or.jp/> (검색일: 2025.04.12.)



<그림 27> 야타이(임시 무대) 가부키

출처: 일본유네스코협회연맹, <https://www.unesco.or.jp/> (검색일: 2025.06.10.)



<그림 28> 전국 가부키 행사의 어린이 가부키 공연

출처: 일본유네스코협회연맹, <https://www.unesco.or.jp/> (검색일: 2025.05.09.)

2) 시베쓰 유적의 매력을 세계로 전하는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에서 다루는 시베쓰 유적은 국가 지정 사적인 이차니카리카리우스(Ichani-Kalicarius) 유적을 중심으로 읍집의 형태를 띠는 고대 수혈 주거지를 지칭한다. 이 유적은 일본에서 가장 큰 규모의 수혈 주거지로 조몬 시

대(BC 14,000년 ~ BC 300년)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약 10,000년 이상에 걸친 생활의 흔적이 남아있으며, 약 4,400개의 움집 자취가 양호한 상태로 보존되어 있다.⁸⁷⁾

<그림 29>와 같이 이 프로젝트는 수혈 주거지와 주변 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는 한편 국내외 홍보를 목표로 2024년에 등록되었다. 주요 참여 단체로는 미나미시레토코 시베쓰정 관광협회, 시베쓰 관광 가이드협회, 시베쓰 삼림 보호 협회, 외래생물 대책 협회, 가나가와현 사가미여자대학, 시베쓰 인근의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있다. 체험프로그램으로는 국가 지정 사적으로 문혀 있던 100건 이상의 수혈 주거지 유적군을 시각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활동 외에도 주변 삼림 보전(그림 30), 유적 투어, 지역 초등학교 출장, 카누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⁸⁸⁾



<그림 29> 복원된 수혈 주거지

출처: 일본유네스코협회연맹,

<https://www.unesco.or.jp/> (검색일: 2025.04.12.)



<그림 30> 미즈나라 묘목 파종

출처: 일본유네스코협회연맹,

<https://www.unesco.or.jp/> (검색일: 2025.04.12.)

87) 일본유네스코협회연맹(公益社団法人 日本ユネスコ協会連盟), <https://www.unesco.or.jp/> (검색일: 2025.04.12.)

88) 일본유네스코협회연맹(公益社団法人 日本ユネスコ協会連盟), <https://www.unesco.or.jp/> (검색일: 2025.04.12.)

4. 사례 간 비교 분석

1) 프로그램의 참여 대상

앞서 살펴본 6곳의 사례를 토대로 체험프로그램의 참여 대상과 범위를 분석하였다.

서울시의 ‘서울미래유산 스티커 여권투어’는 정해진 참여 대상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나 <그림 31>에서 볼 수 있듯이 스티커를 모으고 완수할 시 배지(badge)를 보상하는 게임적 요소(게이미피케이션)를 가미해 청소년과 청년층의 흥미를 유도하고자 기획된 것으로 보인다. ‘윤극영 가옥 상설프로그램’은 시니어 동요반을 제외하고는 초등학교를 주요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그림 31> 2024년 서울미래유산 스티커 여권투어 완주자 기념품 안내

출처: 서울미래유산, <https://futureheritage.seoul.go.kr> (검색일: 2025.05.01)

부산시의 ‘구포국수 체험관’은 어린이, 중·고등학생, 시니어, 장애인 등 다양한 대상에게 개방되어 있지만 실제로 보호자를 동반한 아동을 주요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촉감을 활용한 체험 요소와 함께 ‘어른(보호자) 무료 참여’라는 안내와 가족 단위 참여의 많은 후기로 보아⁸⁹⁾ 어린이가 주된 참여자임을 확인할 수 있다. ‘부산민주공원’의 체험프로그램은 전반적으로 대상의 범위가 넓었지만 ‘민주공원 봄/가을 숲 체험’의 경우 <그림 32>과 같은 알록달록한 색감과 직관적인 스티커로 구성된 활동지, 어린이 단체 사진을 사용한 소개 글 등으로 미루어 보아 미취학 아동 중심의 프로그램임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민주공원 만나질 풍류’는 <그림 33>에서 볼 수 있듯이 나무 테이블, 체크무늬 돗자리, 블루투스 스피커 등 감성적인 분위기를 연출하여 청년층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으며, 컬러링 북과 미술도구를 제공하고 있어 유아 혹은 초등학생도 흥미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그림 32> 부산민주공원 숲 체험 스티커북
본 연구자가 직접 촬영



<그림 33> 부산민주공원 만나질풍류 제공 물품
본 연구자가 직접 촬영

89) 구포국수체험관 블로그, <https://blog.naver.com/villagekitchen/223517004808> (검색일 : 2025.04.13.)

일본의 ‘프로젝트 미래유산’은 미래 세대의 참여를 지원 조건으로 명시하고 있어 청소년과 청년의 활동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오가노 가부키 계승 프로젝트’는 <그림 34>에서 보이듯이 유아, 초등학생, 중학생을 대상으로 가부키 교실을 운영하고 공연을 진행하며 특히 젊은 리더도 함께 양성하고 있었다. ‘시베쓰 유적의 매력을 세계로 전하는 프로젝트’는 해당 지역의 초등학교와 중학교 그리고 다른 지역인 가나가와현 사가미여자대학이 주요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지역 학교와 연계한 수업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그림 34> 2024년 12월 야와타 신사 연간 대축제
출처: 오가노 가부키, <https://oganokabuki.com/> (검색일: 2025.05.09.)

이상의 분석 내용을 종합해보면 여섯 곳의 미래유산 체험프로그램은 주로 미취학 아동부터 청년 세대를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들은 향후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이끌어갈 ‘다음 세대’라는 점에서 미래유산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의 운영 취지에 적합함을 알 수 있다.

2) 프로그램의 진행 과정

다음으로는 여섯 곳의 사례에서 체험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참여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미래유산을 경험하고 체감했는지 분석하였다.

‘서울미래유산 스티커 여권투어’의 참여자는 직접 미래유산을 찾아가 위치와 외형을 확인하고, 스티커 배부의 위치를 찾는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해당 미래유산을 더 자세히 살펴보고 이해하게 되었다. 미래유산의 모습을 담은 스티커를 여권에 부착하는 과정은 유산에 대한 친밀감을 느끼게 했고, 스티커를 모아 완주하면 주어지는 포상은 성취감을 유도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자신의 일상에서는 인지하지 못했던 유산을 새롭게 발견하고 평소 방문하지 않았던 지역을 체험하며 미래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자발적으로 체득할 수 있었다.

‘윤극영 가옥 상설프로그램’은 참여자들이 실제 윤극영 작곡가가 거주했던 공간을 직접 둘러보고 그의 작품에 담긴 배경과 정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작곡가의 집에서 동요를 듣고 가사와 작품을 낭송하는 활동은 공간에 대한 감성적 몰입을 유도하며, 작품의 의미를 더욱 깊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 더불어 발표회는 다수의 참여자가 미래유산을 함께 향유하고 그 가치를 공동으로 인식하고 공유할 기회를 제공하였다.

‘구포국수 체험관’의 참여자는 체험 시작 전 영상 콘텐츠를 통해 구포국수의 유래와 지역적 의미를 학습한 뒤, 직접 밀가루를 반죽하고 숙성하며 수동식 제면 기계로 국수를 뽑는 과정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참여는 국수의 모양, 촉감, 질감, 냄새를 직접 느끼게 하여 음식과 지역문화를 자연스럽게 연결하였다. 특히 맷돌을 이용한 체험은 밀이 국수가 되는 과정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맷돌이라는 전통 방식의 음식 제작과 식문화를 전달하였다.

‘부산민주공원’ 체험프로그램에서는 참여자들이 공원의 안팎을 걸으며 자연의 소리, 향기 등 계절감을 체험하였고, 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공원의 조성 역사와 문화적 역할, 근현대사적 배경을 학습할 수 있었다. 나아가 체험프로그램은 단순한 역사와 자연 체험을 넘어 역사적 공간의 가치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는 기회를 제공했으며, 외래 관광객들도 한국의 민주주의와 그 정신을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오가노 가부키 계승 프로젝트’는 참여자가 오가노 가부키 공연의 전 과정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운영하였다. 연기부터 무대, 분장, 악기연주, 마무리 작업까지 전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오가노 가부키를 총체적으로 체험하며, 그 안에서 팀워크와 공동체 의식을 느낄 수 있었다. 특히 어린이부터 청년 세대까지 아우르는 구성은 지속과 계승 가능성을 높이고 있었다.

‘시베쓰 유적의 매력을 세계로 전하는 프로젝트’는 참여자들이 유적지 및 주변 자연환경을 직접 관찰하고 보존 활동에 동참할 기회를 제공하였다. 1만 년 이상 이어진 수혈 주거지와 조몬 시대의 생활 흔적을 통해 생태적·역사적 가치에 몰입할 수 있었으며, 카누 체험이나 숲을 보전하는 활동 등을 통해 단순한 학습을 넘어 실천 중심의 체험이 이루어졌다. 또한 지역 마을 주민, 초등학생, 중학생과 타지역 대학생까지 참여함으로써 지역사회와 세대 간의 교류도 활성화하고 있었다.

이상에서 분석한 여섯 사례의 체험프로그램은 참여자의 능동적, 자발적 이행과 더불어 현장 중심의 다각적인 체험이라는 공통적인 특성을 공유하고 있었다. 이를 토대로 체험프로그램은 단순히 정보 전달에 그치지 않고 참여자가 직접 보고, 듣고, 만지고, 움직이는 과정을 통해 기획자와 미래유산 간의 의미 있는 소통이 이루어졌으며 정서적 연결을 형성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험은 장기적으로 미래유산의 보존과 전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조로 이어질 수 있다.

IV. 미래유산 공주밤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의 재구성

1. 체험프로그램의 현황 및 SWOT 분석

본 연구에서는 공주시 미래유산으로 지정된 공주밤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을 재구성하기에 앞서 2024년에 진행된 기존 공주밤 체험프로그램의 현황을 파악한 후 이를 바탕으로 SWOT 분석을 시행하였다.

1) 체험프로그램의 현황

2024년에 진행된 공주밤 체험프로그램으로는 총 5개로 ‘알밤 줍기 자원봉사’, ‘알밤 줍기 체험농장’, 공주문화유산 <야행>의 ‘모단 다과상’, 공주한옥마을의 ‘공주 알밤으로 다식 만들기’, ‘겨울 공주 군밤 축제’가 진행되었다.

구체적으로 ‘알밤 줍기 자원봉사’와 ‘알밤 줍기 체험농장’ 프로그램은 공주시청 산림공원과와 공주시 정안면에서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과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하였다.⁹⁰⁾ 이 가운데 ‘알밤 줍기 체험농장’은 농가에 따라 군밤이나 밤 묵 만들기 체험, 숙박 체험 등으로 확대 운영하였다.

‘모단 다과상’은 근대 문화유산을 소재로 하는 야간 프로그램 ‘공주문화유산 <야행>’의 체험 중 일부로⁹¹⁾ 공주시 미래유산으로 지정된 ‘공주하숙마을’ 내 담소방에서 진행하였다. 참여자는 호박 다식과 쭈다식 반죽

90) 공주시청, https://www.gongju.go.kr/prog/saeolGosi/GOSI_03/sub04_03_03/view.do?notAncmtMgtNo=50936, 공주시 공고 제2024-2416호 (검색일: 2025.04.22.)

91) 문화유산야행, <https://gongju-culturenight.com/> (검색일: 2025.04.25.)

을 다식판에 넣어서 찍고, 직접 찻상을 차려보는 활동을 하였다. 이때 공주 밤으로 만든 울란을 함께 제공하여 차와 함께 즐길 수 있었다.⁹²⁾

<그림 35>는 공주시 미래유산인 ‘공주한옥마을’에서 운영하는 ‘공주 알밤으로 다식 만들기’ 프로그램이다. 이 체험프로그램은 100% 알밤 가루로 만든 다식 반죽을 이용해 다식틀에 찍어보는 체험이었다.⁹³⁾



<그림 35> 공주한옥마을 ‘공주 알밤으로 다식 만들기’

출처: 공주한옥마을, <https://www.gongju.go.kr/hanok/> (검색일: 2025.05.19.)

한편 ‘겨울 공주 군밤 축제’는 매년 초겨울 금강신관 공원에서 개최되는 지역 대표 축제로, 공주밤을 중심으로 다양한 체험과 먹거리를 제공한다. 대표적 체험인 ‘대형화로 & 공주 군밤 그릴존 체험’은 지름 2m의 대형화로 8개를 설치하여 참여자가 직접 밤을 구워 먹을 수 있었다. 이외에도 ‘알밤과 놀아밤!’에서는 <표 5>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알밤을 활용한 간식, 비누, 키링 등을 만드는 11개의 체험프로그램 부스를 마련하였다.⁹⁴⁾

92) 네이버블로그 ‘먹고 여행하고 놀기’, <https://blog.naver.com/gudang87/223590890955>, (검색일: 2025.05.02.)

93) 네이버 블로그 ‘Pixel Photographer’, <https://blog.naver.com/pixel9/222965031565> (검색일: 2025.05.02.)

94) 공주시청, 공주시 ‘제7회 겨울공주 군밤축제’ 오는 26일 개막,

<표 5> 제7회 겨울공주 군밤축제 체험프로그램 부스

번호	업체(개인)명	내 용	체험비(원)
1	탄소영협동조합	밤 쿠키 아이싱 클레이	5,000
		밤 꿀 샌드 쿠키 클레이	5,000
		크림 밤 쿠키 클레이	5,000
2	착한마녀상회	친환경 알밤 비누만들기 체험 (올피, 커피박, 밤꿀비누)	5,000
		삼베 수세미 (고마곰과 공주 원단 스텀프에 색칠)	3,000
3	고마카즈	알밤품은 곰팡 핑거푸드	4,000
4	서인아트	친환경 손수건 꾸미기 (고마곰과 공주, 알밤나무 모양 꾸며넣기)	4,000
		전통 노리개 꾸미기	3,000
5	그리다	알밤 마그네틱 체험	5,000
		공주, 고마곰 우드 키링	3,000
6	젤리언니	꿀밤젤리 만들기	5,000
		알밤푸딩 만들기	5,000
		알밤피자 만들기	5,000
7	요리노리터	알밤쿠키 만들기	3,000
		알밤이 썸빵 만들기	5,000
		알밤피자 만들기	10,000
8	리니공방	밤 모양 머리띠 만들기	9,000
		밤 모양 머리핀, 브로치, 열쇠고리	5,000
9	누치공방	알밤비누 만들기	5,500
		밤꿀비누 만들기	5,500
10	농업법인 공드리주식회사	알밤품은 치즈햄버거	5,000
11	우리농산(주) 농업법인회사	생울 활용한 군밤 간식 만들기	5,000

출처: 공고 제2024-2호 「알밤과 놀아밤!」 부스 운영자 선정 결과,
<https://www.gongju.go.kr>, 공주시청 (검색일: 2025.05.11.)

ps://www.gongju.go.kr/prog/saeolNews/sub04_02_01/view.do?newsEpctNo=16967 (검색일:
 2025.04.25.)

2) 체험프로그램에 대한 SWOT 분석

앞서 살펴본 기존 공주밤 체험프로그램의 현황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SWOT 분석을 시행하여 내부요인으로 강점(Strength)과 약점(Weakness), 외부 요인으로 기회(Opportunity)와 위협(Threat)을 도출하였다.

(1) 체험프로그램의 강점과 약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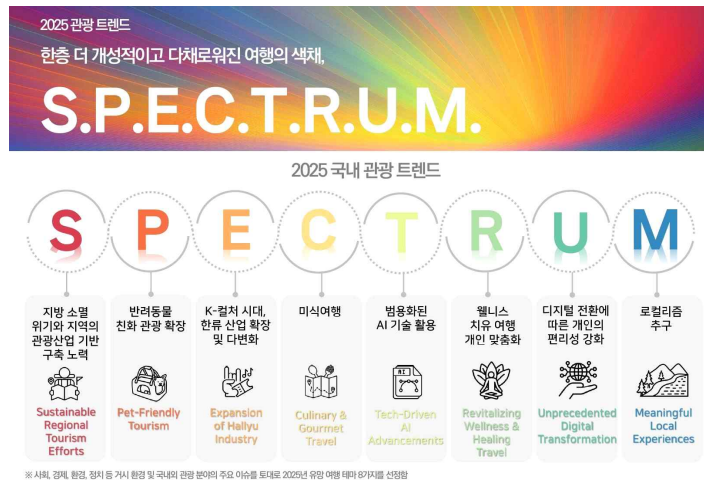
공주밤 체험프로그램의 강점 요인을 살펴보면 참여자가 직접적이고 다양한 현장 체험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알밤을 직접 줍고 프로그램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으며 밤을 구워 먹는 등 공주밤을 활용한 활동이 농원, 한옥, 매장 등의 다양한 장소에서 이루어진다. 특히 알밤 줍기 프로그램은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지역 농가를 지원하는 취지를 지니고 있어 참여자에게 지역사회와의 연결감을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문화를 체험하고 다식과 같은 식문화를 이해하는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체험프로그램을 계절, 장소, 콘셉트 등 테마에 따라 분위기를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옥마을에서 다식을 만들거나 <야행>과 같은 근현대적 분위기의 콘셉트로 구성된 다과상을 차리는 과정은 감성적인 조화를 통해 체험의 몰입도를 높인다.

반면 약점 요인으로는 계절과 기후에 따른 제한성을 들 수 있다. 일례로 알밤 줍기는 밤이 열리는 가을에만 체험할 수 있고, 야외에서 진행되므로 우천 시에는 체험이 어렵다. 겨울철의 군밤 축제도 비나 눈 등의 기후에 영향을 받는 점에서는 유사한 한계를 지닌다. 또한 ‘알밤 줍기 자원봉사’ 프로그램은 참여자의 자발적 참여에 의존하는 구조로 인해 체험에 대한 흥미를 끌어내고 참여를 유인하기 위한 사전 홍보와 동기부여 전략이 필요하다.

아울러 체험 과정에서 공주밤에 대한 지식과 가치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시간이나 기회가 부족한 것도 약점이다. 따라서 단순히 보고 만지는 체험도 중요하지만 공주밤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사전 교육과 효과적인 정보 전달 방식이 요구된다.

(2) 체험프로그램의 기회와 위협

공주밤 체험프로그램의 기회 요인으로는 최근의 관광 트렌드에서 그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 <그림 36>에 제시한 2025년 한국관광공사의 국내 관광 트렌드 스펙트럼(S.P.E.C.T.R.U.M.) 8가지는 로컬, K-컬처, 미식, 웰니스 등의 주요 키워드를 포함하고 있다.⁹⁵⁾ 이러한 트렌드는 공주와 같은 중·소도시로의 관광 수요 증가 가능성을 시사하며, 로컬푸드인 공주밤이 미식과 웰니스를 분야 모두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다.



<그림 36> 2025년 국내 관광 트렌드 스펙트럼(S.P.E.C.T.R.U.M.)

출처: 한국관광데이터랩, <https://datalab.visitkorea.or.kr/> (검색일: 2025.04.30.)

95) 한국관광공사, ‘한층 더 개성적이고 다채로워진 여행의 색채 2025 관광 트렌드, S.P.E.C.T.R.U.M.’, <https://knto.or.kr/pressRelease> (검색일: 2025.04.29.)

또한 <그림 3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주시민들은 공주밤을 지역을 대표하는 이미지⁹⁶⁾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주밤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을 공주시 지자체, 각급 학교와 협력해 진행한다면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과 유대감을 강화할 수 있다. 나아가 최근 해외의 K-콘텐츠 관심을 고려할 때⁹⁷⁾ 공주밤을 주제로 한 체험프로그램을 온라인 콘텐츠로 기획하고 구성한다면 공주의 문화와 가치를 해외 소비자들에게 소개하는 유의미한 작업이 될 수 있다.



<그림 37> 공주시 이미지 조사 결과

출처: 다정공감 공주, <https://gonggam.gongju.go.kr> (검색일: 2025.05.03.)

96) 다정공감 공주, <https://gonggam.gongju.go.kr/homepage/> (검색일: 2025.05.03.). 다정공감 공주 여론조사는 온라인상에서 2024년 11월 4일 ~ 11월 22일까지 857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97) 장인서, '저작권 무역수지 12년 연속 흑자... 문체부 "K-콘텐츠 수출 증가 지속"', <https://www.fnnews.com/news/202503250640517245>, 파이낸셜뉴스 (검색일: 2025.05.03.)

한편 위협 요인으로는 콘텐츠의 한계를 들 수 있다. 공주밤이라는 특정 소재에 의존하는 구조로 인해 알밤 수확량과 공급 환경의 변화에 따라 체험의 내용이 제약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알밤 줍기’ 나 ‘겨울공주 군밤축제’는 단순 수확이나 시식 중심의 단순한 활동으로 그칠 가능성이 있으며 공주한옥마을의 경우 매년 유사한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어 재방문객의 흥미를 유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러한 문제는 프로그램 간 연계를 통해 체험을 확장하거나 계절과 대상에 따라 콘텐츠를 유연하게 전환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요구된다.

이상으로 공주밤 체험프로그램에 대한 SWOT 분석의 결과는 <표 6>에 정리하였다.

<표 6> 공주밤 체험프로그램에 대한 SWOT 분석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자의 직접적인 현장 체험 ▶ 지역문화, 식문화 등의 교육적 효과 ▶ 계절별·테마별 분위기 조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절 혹은 기후의 제한성 ▶ 참여도 의존과 동기부여 한계 ▶ 공주밤에 대한 지식 확장 필요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 및 소비 트렌드와의 부합 ▶ 지자체와 학교와의 협업 ▶ 콘텐츠 활용(OSM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밤 수확량과 공급의 불안정성 ▶ 단순한 수확·시식 체험으로 국한 ▶ 낮은 재참여 유도의 가능성

2. 체험프로그램의 재구성 토대

본 연구는 공주밤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재구성하기 위하여 미래유산을 활용한 국내외 체험프로그램의 사례 간 비교 분석 결과와 기존 공주밤 체험프로그램에 대한 SWOT 분석에서 도출된 내·외부 요인을 바탕으로 번 슈미트(Bernd H. Schmitt)의 체험 이론을 적용하여 재구성 프로그램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1) 번 슈미트의 체험 이론

번 슈미트는 전통적인 마케팅이 강조해 온 기능적 특징과 편익 중심의 관점에서 벗어나 소비자들과 그들의 사회적 행동에 주목하여 체험 마케팅 이론(Experiential Marketing Theory)을 제시하였다.⁹⁸⁾ 그의 이론에 따르면 체험은 자발적으로 생성하는 것이 아닌 운영 주체에 의해 유도되는 것으로 지시성과 의도성을 내포한다. 따라서 운영 주체인 기획자는 참여자가 체험하게 될 자극을 전략적으로 선택하고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체험은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므로 항상 동일한 반응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체험의 유형별로 분류하고 범주화함으로써 보다 전략적인 기획이 가능하다.⁹⁹⁾

번 슈미트는 체험을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이를 ‘전략적 체험 모듈(Strategic Experiential Modules, SEMs)’이라고 명명하였다. 이는 각각 감각(SENSE), 감성(FEEL), 인지(THINK), 행동(ACT), 관계(RELATE)로 분류할 수 있다. 감각(SENSE)은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을 통해 감각적인 경험을 유도하는 유형을 말한다.

98) 번 슈미트 저, 윤경구·금은영·신원학 역(2013), 『번 슈미트의 체험 마케팅』, 김앤김북스, p.101.

99) 번 슈미트 저, 윤경구·금은영·신원학 역, 위의 책, pp.97~99.

전략적 체험 모듈 가운데 감성(FEEL)은 보이는 소재와 연관되어 긍정적인 감정, 즐거움, 자부심 등과 같이 감성적으로 접근하여 참여자의 느낌과 감정을 유도하는 유형을 말한다. 인지(THINK)는 놀라움, 호기심과 같은 흥미를 유발하여 참여자가 대상에 대한 사고를 확산시키면서 인지적이고 창조적으로 문제 해결의 체험을 유도한다. 행동(ACT)은 참여자의 직접적 체험을 강조하면서 삶의 방식과 사회와의 교류 방식을 다양하고 풍성하게 하는 유형이다. 관계(RELATE)는 앞서 설명한 감각, 감성, 인지, 행동의 요소를 내포하며 참여자 자신의 이상적인 자아나 타인 그리고 문화로 체험을 확장하는 유형을 말한다. 예를 들어 사회적 연결이나 문화로 이어져 체험의 경험을 공유하는 공동체를 형성한다.¹⁰⁰⁾

이와 같은 5가지 모듈은 ‘체험제공수단(ExPros)’를 통해 구체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데 총 7가지 도구로 구성된다. 이는 커뮤니케이션, 시각적·언어적 아이덴티티, 상품 외관, 공동브랜딩, 공간적 환경, 전자매체, 인적 요소이다. 각 체험제공수단을 살펴보면, ‘커뮤니케이션’은 홍보 캠페인, 광고, 팸플릿, 뉴스레터 등을 포함하며, ‘시각적/언어적 아이덴티티’는 체험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지역 브랜드의 이름, 로고 등을 의미한다. ‘상품 외관’은 체험프로그램에 포함되는 상품의 디자인, 포장 및 진열 등을 가리키며, ‘공동브랜딩’은 운영과 관련된 제휴나 협업 등을 뜻한다. ‘공간적 환경’은 건물, 사무실, 전시 부스 등 체험이 이루어지는 물리적 공간이며, ‘전자매체’는 웹사이트와 같은 디지털 기반의 온라인 공간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인적 요소’는 체험프로그램의 담당자, 운영 주체, 스태프 등 관련된 모든 인력을¹⁰¹⁾ 포괄한다.

100) 번 슈미트 저, 윤경구·금은영·신원학 역, 앞의 책, pp.101-108.

101) 번 슈미트 저, 윤경구·금은영·신원학 역, 위의 책, pp.113-137.

2) 체험프로그램의 소재 개발

본 연구에서는 재구성하는 공주밤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의 소재로 ‘올피 블렌딩 티 클래스’를 제안하고자 한다. 올피는 밤의 속껍질로 항산화, 치매 억제, 피부 노화 방지, 혈당 저하, 아토피 예방 등의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동의보감』에는 올피가 위암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 기록으로도 전해진다. 또한 카페인이 없어 어린이나 임산부 등 다양한 연령층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올피는 가공 기술의 개발과 적용이 부족하여 40~50% 이상이 버려지고 있어 우수한 효능에 비해 활용도가 매우 낮은 상황이다.¹⁰²⁾

‘블렌딩 티’는 ‘섞다, 혼합하다’라는 영어 ‘blend(-ing)’와 차를 의미하는 영어 ‘tea’의 합성어로, 하나의 재료에 다른 재료를 더하여 새로운 맛과 향을 만들어내는 차를 의미한다. 따라서 ‘올피 블렌딩 티’는 올피를 주재료로 하여 식물의 잎, 뿌리, 과실 등의 부재료를 더해 만든 차를 뜻한다. 이러한 ‘올피 블렌딩 티 클래스’를 포함하여 재구성하는 체험프로그램은 기존 공주밤 체험프로그램의 SWOT 분석을 강화·보완하고, 번 슈미트의 체험 이론을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차별성을 지닌다.

첫째, 올피라는 재료를 통해 공주밤의 활용 범위를 확장하고 지역 문화와 식문화를 동시에 반영한 감각적 체험이 가능하다. 참여자는 올피와 부재료의 모양을 관찰하고, 향과 맛을 직접 체험하는 등 오감을 자극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특히 계절이나 시즌(예: 크리스마스, 밸런타인데이 등)에 어울리는 주제, 재료, 패키지디자인 등을 통해 감성적 몰입을 유도할 수 있다.

둘째, 올피를 말려 가공한다면 장기 보관이 가능하므로 프로그램을 사계

102) 김종술, 알밤 껍질을 발효한 ‘올피차’를 아시나요, <https://omn.kr/16gdi>, 오마이뉴스 (검색일: 2025.05.04.)

절 내내 운영할 수 있어 공주밤 체험의 계절적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 더불어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써 공주밤의 이야기를 담은 소책자를 함께 제공한다면 참여자는 공주밤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는 인지적 체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셋째, ‘올피 블렌딩 티 클래스’는 로컬, K-콘텐츠, 미식, 웰니스 등 최근 관광 및 소비 트렌드에 부합된다. 특히 ESG 경영¹⁰³⁾과 친환경 소비와 같은 지속가능성을 중시하는 흐름 속에서¹⁰⁴⁾ 올피의 재자원화는 주목할 만한 체험 소재가 될 수 있다. 더불어 올피는 풍부한 효능과 카페인이 없는 재료로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음용할 수 있는 점에서 접근성이 높다. 여기에 지역 임업인의 인터뷰나 작업 과정을 담은 시청각 콘텐츠를 공동브랜딩으로 결합한다면 참여자는 세대, 성별, 국적 등에 상관없이 지역사회와의 연계성을 체감할 수 있으며 이는 관계적 체험으로도 발전할 수 있다.

넷째, 올피는 공주밤의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이어서 원물 부족으로 인한 공급 위협을 완화하여 비교적 안정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단순한 수확과 시식 체험을 넘어 참여자가 재료의 향과 맛을 직접 확인하고 원하는 재료를 선택하여 자신만의 블렌딩을 구성하고 이름을 붙이는 과정은 시각적·언어적 아이덴티티를 부여하는 행동적 체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처럼 차를 만들고 음용하는 전 과정을 통해 참여자는 신체적·정서적·사회적·인지적·정신적 웰니스를 아우르는 다차원적 체험으로 확장할 수 있으며¹⁰⁵⁾ 이는 경험의 몰입도와 기억의 지속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103) ESG는 기업의 사회·환경적 활동까지 고려하여 기업의 성과를 측정하는 기업성과지표를 뜻한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https://terms.naver.com/entry.naver?cid=43667&docId=931232&categoryId=43667>)

104) 구현화, [2024 ESG 브랜드]① 소비자 10명 중 8명은 ESG 인지...2년 전 대비 10%p 상승,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8265246i>, 한경ESG (검색일: 2025.05.04.)

105) 손진선·최배영(2023), MZ세대 여성의 차생활과 웰니스 간 연관성 연구, 차문화·산업학 62, pp.91-121.

3. 체험프로그램의 재구성 내용 및 운영 방안

1) 체험프로그램의 목표

공주밤 체험프로그램에 대한 SWOT 분석을 바탕으로 내부요인과 외부요인을 연결한 SWOT MIX 전략을 토대로 재구성하는 체험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였다. 여기서 SWOT MIX 전략은 강점을 활용해 기회를 극대화하는 SO 전략, 강점을 활용해 위협에 대응하는 ST 전략, 약점을 보완해 기회를 살리는 WO 전략, 약점을 보완하며 위협을 최소화하는 WT 전략을 지칭한다.

첫째, SO 전략으로서의 목표는 현장 체험과 지역 식문화를 교육적 콘텐츠로 연결하고, 이를 트렌드에 맞는 감성 체험프로그램으로 제공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공주밤의 역사와 전통적 가치를 체험 요소에 반영하여 몰입감 있는 경험으로 확장되도록 구성한다. 참여자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공주밤을 공주 지역의 귀중한 자산으로 인식하고, 이를 통해 지역문화를 보다 깊이 있게 체험할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체험은 지역민의 정체성 고취를 위한 지자체 및 학교와의 협업 콘텐츠로도 발전할 수 있다.

둘째, ST 전략으로서의 목표는 공주밤이라는 테마를 기반으로 다양한 이야기를 구성함으로써 참여자가 지역 고유의 계절감과 정서를 특별하게 경험하고 재참여의 가능성을 높이는 데 있다. 예를 들어 율피 재활용의 필요성이나 지역 농가의 실제 생산과 유통과정을 듣는 경험은 참여자가 지역사회의 생산 및 유통 구조와 가치를 체감하는 데 도움을 주며 지속가능한 관계형성을 유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참여자는 거주 지역이나 국적에 상관없이 공주시와의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대할 수 있다.

세 번째 WO 전략으로서의 목표는 공주시의 미래유산과 공주밤 체험프로그램을 연계하여 공주밤에 대한 지식과 경험의 활용 범위를 다각적으로 확장하는 데 있다. 예를 들어 특정 미래유산이 소재한 장소에서 공주밤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을 병행하거나 기존의 공주밤 체험프로그램과 협업을 통해 새로운 코스형 체험을 재구성할 수 있다. 이처럼 체험콘텐츠의 공간적·문화적 확장은 참여자의 체류 시간을 자연스럽게 늘리고, 지역의 경제와 문화 향유의 활성화를 동시에 높일 수 있다.

네 번째 WT 전략으로서의 목표는 계절이나 기후의 제약 없이 운영 가능하도록 공주밤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을 마련함으로써 공주시와 공주밤의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제고하는 데 있다. 예를 들어 ‘울피 블렌딩 티 클래스’ 처럼 계절과 공급 상황에 구애받지 않는 재료를 활용할 경우 실내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구성하거나 계절의 특성을 반영한 시즌제 프로그램으로 다양성을 부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공주시를 방문하는 시기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공주밤을 체험할 수 있다는 인식을 형성하고, 공주밤이 지역을 대표하는 상징적 자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

2) 체험프로그램의 대상

공주시는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시민들의 자산을 발굴하기 위해 공주시 미래유산의 선정 공모를 시행해 왔다. 앞서 분석한 국내외 미래유산 체험프로그램의 사례에서는 지역민과 외래 관광객을 포함하되 주요 대상은 미취학 아동부터 청년 세대에 이르는 ‘다음 세대’로 설정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공주밤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의 참여 대상은 5~10명의 소규모로 구성되는 MZ세대(1980년대 초부터 2000년대 초반에 출생한 청년 세대¹⁰⁶⁾) 지역민이나 외래 관광객으로 한다. 소규모의 MZ세대를

주 참여층으로 설정한 이유는 본 체험프로그램의 소재인 ‘율피 블렌딩 티 클래스’의 특성과 관련이 있다. ‘율피 블렌딩 티 클래스’는 주재료인 율피와 부재료의 색을 보고, 향을 맡고, 맛을 보며 진행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몰입감 있는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이를 위해 충분한 공간 확보와 개별 참여자의 집중도가 중요하며, 뜨거운 물과 깨지기 쉬운 용기를 사용하므로 이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참여자는 체험 장소로의 자발적 이동이 가능해야 하므로 독립적으로 시간과 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MZ세대는 미닝 아웃(meaning out)의 성향을 보이는 특징이 있다. 미닝 아웃은 의미, 신념을 의미하는 영어 ‘미닝(meaning)’과 ‘벽장 속에서 나오다’라는 영어 ‘커밍아웃(coming out)’의 합성어로 자신만의 신념이나 취향을 소비 행위를 통해 적극적으로 표출하는 행동을 뜻한다.¹⁰⁷⁾ 이 성향은 단순한 제품 구매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가치관에 부합하는 기업이나 활동을 지지하거나 반대로 불매를 통해 비판적인 메시지를 전한다. 예를 들어 동물 학대 논란이 있는 기업의 상품을 불매하고, 친환경적인 브랜드를 선호하는 소비 방식은 기업의 경영 전략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에 변화를 요구하며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나아가 ‘미닝 아웃’은 개인의 의미 있는 소비를 넘어 사회적 소통과 연대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는 동력이 된다.¹⁰⁸⁾

현재 공주시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인구 감소 도시로 지정이 된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자기 삶의 터전

106) 김아현(2025), MZ세대의 소비성향을 반영한 디자인 가치가 구독 가전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5-6.

107)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https://terms.naver.com/entry.naver?cid=43667&docId=4396872&categoryId=43667> (검색일: 2025.05.05.)

108) 신진주, [신진주 ESG전문가 컬럼] ‘미닝 아웃(Meaning Out)’에 이젠 깊어질 때,
<https://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9035>, 파이낸스투데이 (검색일: 2025.05.05.)

과 사회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고자 하는 MZ세대는 지역 소멸 문제나 불균형 발전 문제에도 높은 관심을 가질 수 있다. 이들이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공주밤의 가치와 지역 현황을 공유한다면 지역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이해관계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3) 체험프로그램의 내용 및 운영 방안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24년 공주시에서 진행된 기존의 공주밤 체험프로그램은 공주시청 산림공원과와 공주시 정안면의 ‘알밤 줍기 체험농장/자원봉사’, 공주문화유산 <야행>의 ‘모단 다과상’, 공주한옥마을의 ‘공주 알밤으로 다식 만들기’와 ‘겨울 공주 군밤 축제’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존 체험프로그램의 연계·보완하여 ‘유피 블렌딩 티 클래스’를 포함한 체험프로그램을 새롭게 재구성하고자 한다. 프로그램의 내용은 <표 7>에 제시한 바와 같이 하루 일정으로 구성되며, 오전에는 공주한옥마을의 ‘공주 알밤으로 다식 만들기’를 진행하고, 오후에는 공주문화유산 <야행>의 ‘모단 다과상’을 ‘유피 블렌딩 티 클래스’로 대체하여 진행한 후에 마지막에는 직접 만든 다식과 블렌딩 티를 차려 함께 시음하는 다과 시간으로 마무리한다. 본 체험프로그램의 진행 장소는 시외 버스정류장과 공주한옥마을 그리고 이 두 장소를 기준 대중교통으로 30분 이내에 이동 가능한 공주시 중동, 반죽동, 봉황동 일대의 실내 건물을 설정하여 접근성과 이동의 편의성을 높인다. 이로써 미래유산과 연계하여 체험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며 동시에 계절과 관계없이 연중 운영이 가능하게 한다.

<표 7> 재구성된 공주밤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의 내용

순서	시간	소요시간	체험내용
1	10:00 ~ 11:00	60분	공주 알밤을 활용한 전통 다식 만들기 체험
2	11:00 ~ 11:30	30분	공주시내(중동, 반죽동, 봉황동)로 이동
3	11:30 ~ 13:30	120분	자유 중식 및 주변 미래유산 탐방 (공주산성시장, 공주 하숙마을, 풀꽃문학관 등)
4	13:30 ~ 15:00	90분	*율피 블렌딩 티 클래스
5	15:00 ~ 15:30	30분	만든 다식과 블렌딩 티로 다과상 차림 및 나눔

<표 8>은 오후에 진행하는 ‘율피 블렌딩 티 클래스’의 교육안으로 ‘나만의 율피 블렌딩 티 만들기’를 주제로 90분 동안 이론 수업과 실습 활동으로 구성한다. 도입 단계에서는 강사 소개와 함께 참여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공주 여행이나 차 생활 경험담을 공유하며 자연스럽게 수업 분위기를 형성한다.

이론 수업에서는 율피와 공주밤의 기능 및 역사적 배경을 소개하고, 체험 장소와 가까이 소재한 미래유산을 사례로 들어 간단히 설명한다. 이후 블렌딩에 사용될 재료들의 이름, 특징, 기능을 함께 학습한다.

<표 8> 오후 프로그램 율피 블렌딩 티 클래스 교육안

주제	나만의 율피 블렌딩 티 만들기		
교육방법	이론 + 실습	소요시간	90분
목표	1. 율피와 미래유산 공주밤의 가치 및 부재료 이해 2. 공주 여행에 어울리는 나만의 블렌딩 티 제작		

준비물	1. 이론 수업 : 소책자 2. 실습 활동 - 율피, 캐모마일, 레몬버베나, 레몬그라스, 루이보스, 허니부쉬, 콘플라워 등 블렌딩 재료 - 보울(우림용·블렌딩용), 스푼, 집게, 비닐장갑, 시음용 컵, 저울, 티 필터, 티케이스, 라벨지, 행주, 앞치마, 네임펜, 양동이	
단계	체험 내용	소요시간
도입	▶ 강사 소개 및 참여자 인사 ▶ 공주 여행 또는 차생활 관련 이야기 나누기	10분
이론 수업	▶ 율피와 공주밤의 기능 및 가치 ▶ 공주밤 체험지 주변 공주시 미래유산 소개 ▶ 블렌딩 재료 소개	20분
실습 활동	① 오감 탐색 - 블렌딩 재료의 형태와 향 관찰 - 재료를 우려 색, 향, 맛을 비교 체험 - 체험 재료에 대한 간단한 정보 기록 ※ 향은 보울 뚜껑 또는 찻숟가락 뒷면 활용, 시음은 찻잔에 털어서 진행	50분
	② 티 레시피 만들기 - 블렌딩 티의 주제(컨셉) 설정 - 선정 재료의 조합 및 비율 구성	
	③ 블렌딩 조합 맛보기 (5g) - 저울을 이용한 재료 계량 및 블렌딩 - 티필터에 담아 우려낸 후 시음	
	④ 티 완성하기 (20g 제작) - 시음한 조합을 바탕으로 20g 대용량 블렌딩 티 제작 - 필요 시 비율 조정 후 최종 레시피 확정	
	⑤ 티 이름 짓고 포장하기 - 완성한 블렌딩 티를 포장 용기에 담기 - 티의 이름을 정하고 라벨지에 기입 후 부착	
정리	▶ 정리 및 휴식 - 사용한 재료 및 도구 정리	10분

실습 활동에서는 율피를 주재료로 자신만의 블렌딩 티를 만들고 이름을 붙여 포장하는 전 과정을 체험한다. 사용되는 재료는 율피 외에도 캐모마일, 레몬버베나, 레몬그라스, 루이보스, 허니부쉬, 콘플라워 등이 있다. 준비 도구로는 차를 우리는 보울과 블렌딩용 보울, 스푼, 집게, 비닐장갑, 시음용 컵, 저울, 티 필터, 포장용 틴케이스, 라벨지, 행주, 앞치마, 네임펜, 양동이 가 필요하다. 실습 과정은 ① 율피와 부재료의 생김새를 관찰하고 향을 맡 으며, 우려낸 차의 색과 맛을 비교해 보는 오감 탐색을 시행한다. 탐색 결과는 노트에 기록하며 자신의 취향을 찾아본다. ② 공주에서의 경험이나 율피 의 이미지에 어울리는 콘셉트를 설정하고 오감 탐색을 통해 선호한 재료와 그 비율을 정한다. ③ 총 5g을 기준으로 비율을 계산하고 저울을 이용해 블 렌딩 보울에 재료를 담아 티 필터에 담아 우려낸 뒤 맛을 본다. ④ 필요에 따라 비율을 조정하여 최종 레시피를 완성하고, 총 20g 분량의 블렌딩 티를 만들어 틴케이스에 담는다. ⑤ 설정한 콘셉트에 어울리는 티 이름을 짓고 날짜와 함께 라벨지에 적어 포장한다.

마지막으로 정리 단계에서는 사용한 재료와 도구를 정리한 후, 오전에 만 든 다식과 함께 다과상을 준비하기 전 휴식으로 마무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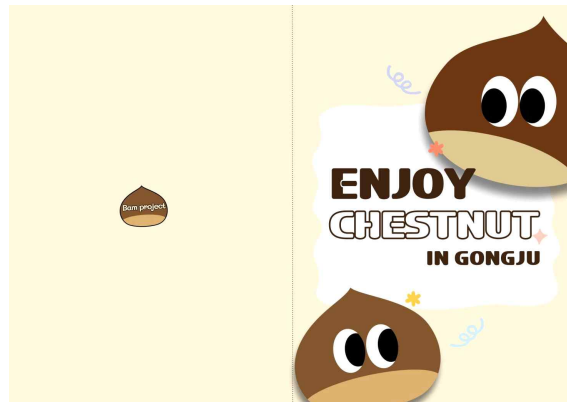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 재구성된 공주밤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은 번 슈미트의 체험 이론을 바탕으로 5가지의 전략적 체험 모듈이 통합적으로 조화롭게 체험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 전략적 체험 모듈(Strategic Experiential Modules, SEMs)의 유형 중 감각(Sense) 체험은 참여자가 율피의 모양과 질 감, 다식 반죽의 향, 우려낸 차의 맛 등을 오감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여 시 각·후각·미각을 통한 몰입을 유도한다. 감성(Feel) 체험은 한옥이라는 공 간에서 만든 다식을 블렌딩 티와 함께 정갈하게 차리고 나누는 과정에서 전 통적이고 정감 있는 따뜻한 정서를 경험하도록 한다. 인지(Think) 체험은 공 주밤과 율피에 담긴 공주 지역의 역사적, 식문화적 의미 등을 학습하고 주

변 공주시 미래유산(공주 산성시장, 공주 하숙마을, 풀꽃문학관 등)를 탐방하여 지역 유산의 가치를 학습하고 성찰하도록 유도한다. 행동(Act) 체험은 참여자가 재료를 고르고, 다식을 만들고, 직접 미래유산을 찾아보는 전 과정을 수행하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나아가 이를 공유하거나 찾자리 나눔을 통해 체험을 확장하며 실천적 참여로 이어지도록 한다. 관계(Relate) 체험은 공주밤 산업의 어려움이나 미래유산의 선정과 보존의 이야기를 통해 공주시민의 기억을 교류하고, 찾자리를 통한 참여자 간 소통 및 경험 공유를 통해 사회적 연결망 형성과 지역 공동체에 대한 인식을 높이도록 한다.

다음의 <표 9>는 프로그램의 운영 방안으로 변 슈미트의 체험제공수단(ExPros)을 적용하였다. 먼저 커뮤니케이션 요소로 <그림 38>, <그림 39>, <그림 40>에 제시한 바와 같이 공주시와 공주밤의 소식과 가치를 전달하는 소책자를 제작하여 체험프로그램 중 참여자들이 내용을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돕는다. 소책자를 비롯한 전반적인 테마를 공주밤으로 통일하여 시각적·언어적 아이덴티티를 표현하며, 공주밤이 연상되는 색의 소책자와 ‘올피 블렌딩 티’ 라벨 디자인으로 상품의 외관을 패키징 한다. 공주시 중동, 반죽동, 봉황동 일대의 미래유산 공주산성시장, 공주 하숙마을, 풀꽃문학관의 주변 지역의 건축물을 공간적 환경으로 이용하고 기존의 공주밤 체험프로그램과 함께 재구성하는 공동브랜딩으로 체험 운영에 시너지를 창출한다. 또한 체험프로그램 종료 후에는 웹 폴더를 설정하여 QR코드를 통해 기획자와 참여자가 함께한 체험 사진, 동영상 등을 1주일 동안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하여 체험의 지속성과 만족도를 높인다. 운영하는 인적 요소는 총괄책임자, 각 순서를 담당하는 진행자, 블렌딩 티 자격 소지자가 역할을 이행한다.

<표 9> 재구성된 공주밤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의 운영 방안

구분	운영 방안
커뮤니케이션	소책자 제작
시각적·언어적 아이덴티티	공주밤을 테마로 통일
상품 외관	공주밤이 연상되는 색의 리플릿, 라벨 디자인
공간적 환경	미래유산 주변 지역의 건축물 이용
공동브랜딩	재구성된 체험프로그램과 연계
전자매체	웹 폴더, QR코드로 사진과 동영상 공유
인적요소	총괄책임자, 각 순서의 진행자, 블렌딩 티 자격 소지자



<그림 38> 소책자 표지 예시
본 연구자가 제작



<그림 39> 소책자 이론 수업 자료 예시
본 연구자가 제작



<그림 40> 소책자 공주시 밤 활용 음식점 지도 예시
본 연구자가 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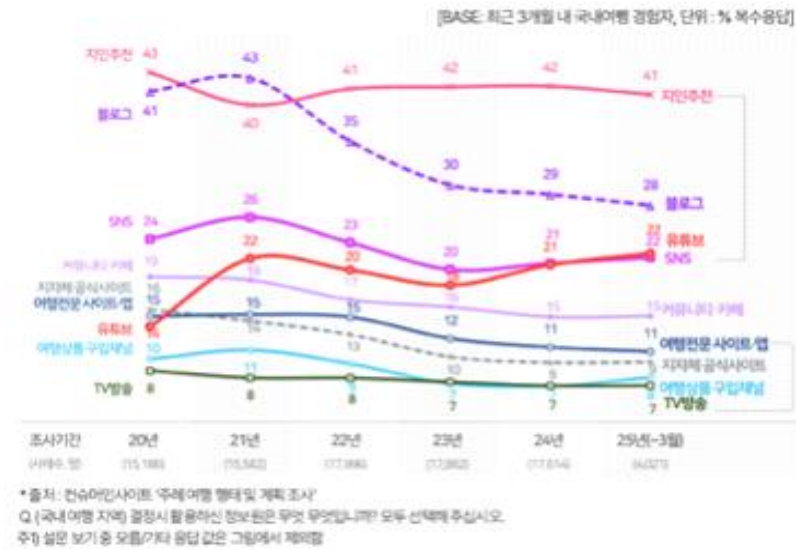
4. 체험프로그램의 활성화 방향

본 연구에서 재구성된 공주밤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의 활성화 방향은 운영적, 행정적, 학술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1) 운영적 측면

먼저 운영 측면에서는 기존 프로그램과의 연계를 통해 계절과 기후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도 연중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공주한옥마을에서 진행하는 ‘공주 알밤으로 다식 만들기’ 체험은 가을철에는 ‘밤 줍기 체험’, 겨울철에는 ‘겨울공주 군밤축제’ 등 계절별 특화 프로그램으로 전환함으로써 지역성과 계절감을 반영한 체험으로 확장할 수 있다. 또한 실내 체험프로그램을 병행함으로써 기후의 제약을 보완할 수 있다. 예컨대 겨울공주 군밤축제 기간 중 실내 부스를 운영했던 업체들과 협업하여 ‘율피 비누 만들기’, ‘알밤을 활용한 쿠키클래스’, ‘알밤 키링 및 마그네틱 만들기’ 등의 체험프로그램을 구성하면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참여자에게 더욱 풍성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아울러 체험프로그램의 주 대상인 MZ세대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홍보 전략도 중요하다. 특히 공주시로 직접 방문을 해야 하는 특성상 체험프로그램 참여 전후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흥미를 유지할 수 있도록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그림 41>을 살펴보면 국내 여행지 선택 시 소비자들은 공공기관이나 상업적인 채널보다는 지인이나 팔로우하는 SNS 계정에 게시된 콘텐츠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⁰⁹⁾

109) 컨슈머인사이트, 여행의 시작과 끝인 ‘SNS’가 국내시장 회복의 관건, https://www.consumerinsight.co.kr/leisure-travel/r_Newsview?no=3707&PageNo=1 (검색일: 2025.05.05.)



<그림 41> 국내 여행지 결정 시 정보탐색 활용 채널

출처: 컨슈머인사이트, <https://www.consumerinsight.co.kr/> (검색일: 2025.05.05.)



<그림 42> ‘동구먹빵’ 리플릿

출처: 대전광역시 동구 블로그, <https://blog.naver.com/djdonggu/> (검색일: 2025.05.05.)

<그림 42>에 제시된 대전광역시 동구의 사례는 이러한 점을 잘 보여준다. 대전 동구는 최근 몇 년간 ‘빵의 도시’라는 지역 브랜딩을 통해 젊은 층 사이에서 SNS 명소로 부상하였으며¹¹⁰⁾ 2024년 진행한 ‘빵빵 투어 in Donggu’ 프로그램에서는 ‘동구떡빵’이라는 리플릿을 제작해 지역 내 관광 명소와 빵 맛집을 소개하고, 동구 전역을 투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리플릿 속 ‘빵빵도시 대전동구’라는 지도는 큰 호응을 얻어 「트렌드 코리아 2025」에 소개되기도 했다.¹¹¹⁾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는 공주밤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의 홍보 전략으로 SNS를 주요 홍보 플랫폼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특히 MZ세대 여행 애호가의 과반수가 ‘인스타 업로더’¹¹²⁾라는 점을 고려하여 국내 유일한 알밤 특구인 공주시를 ‘밤의 마을’이라는 콘셉트로 제시하고, 공주 알밤의 상징성과 지역성을 감각적으로 전달하는 콘텐츠를 기획할 필요가 있다. 또한 최근 Z세대 사이에 주목을 받는 ‘텍스트 힙(Text Hip)¹¹³⁾’ 트렌드를 반영하여 매거진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다. <그림 43>와 <그림 44>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현재 매거진 콘텐츠는 패션, 문화, 음식, 음악 등 다양한 장르를 포괄하며,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독자가 직접 참여하고 커뮤니티를 형성한다.¹¹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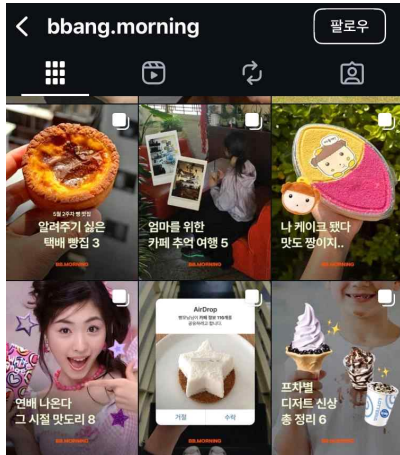
110) 박연선, ‘성심당 찍고 쇼핑까지… “머무는 관광 가능성 있어”’,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165285&ref=A>, KBS대전(검색일: 2025.05.05.)

111) 조명휘, ‘‘빵지도’ 빵빵도시 대전동구, ‘트렌드코리아2025’로 본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1029_0002938171, 뉴시스(검색일: 2025.05.05.)

112) 컨슈머인사이트, 여행의 시작과 끝인 ‘SNS’가 국내시장 회복의 관건, https://www.consumerinsight.co.kr/leisure-travel/r_Newsview?no=3707&PageNo=1 (검색일: 2025.05.05.)

113) 텍스트 힙은 ‘글자’를 뜻하는 텍스트(text)와 ‘멋있다, 개성 있다’를 뜻하는 힙(hip)의 합성어로, 책, 필사와 같은 글자 기반의 콘텐츠를 멋지다고 여기면서 생겨난 현상이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730495&cid=43667&categoryId=436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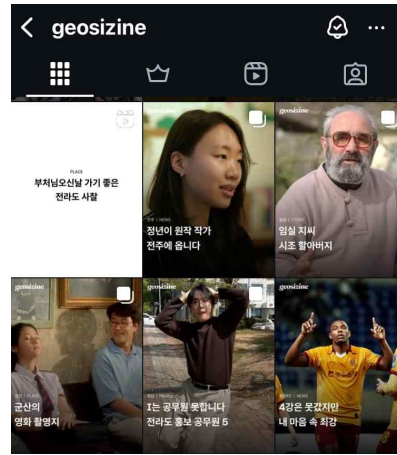
114) 고구마팜, ‘요즘은 ‘텍스트 힙’이 대세! Z세대가 팔로우한 인스타그램 매거진 총정리!’, <https://gogumafarm.kr/%EC%9A%94%EC%A6%98%EC%9D%80-%ED%85%8D%EC%8A%A4%ED%8A%B8-%ED%9E%99%EC%9D%B4-%EB%8C%80%EC%84%B8-z%EC%84%B8%EB%8C%80%EA%B0%80-%ED%8C%94%EB%A1%9C%EC%9A%B0%ED%95%9C-%EC%9D%B8%EC%8A%A4%ED%83%80%EA%B7%B8/> (검색일: 2025.05.05.)



<그림 43> 빵 매거진 콘텐츠
‘빵모닝’ 인스타그램

출처:

<https://www.instagram.com/bbang.morning>
(검색일: 2025.05.05.)



<그림 44> 전라도 로컬 매거진
콘텐츠 ‘거시기매거진’
인스타그램

출처: <https://www.instagram.com/geosizine>
(검색일: 2025.05.05.)



<그림 45> 매거진 콘텐츠 프로필과 게시물 예시

본 연구자가 제작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림 45>과 같이 ‘밤의 마을 공주’ 라는 콘셉트로 공주밤 관련 콘텐츠를 발행하는 매거진 콘텐츠 계정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계정은 공주시의 알밤뿐만 아니라 체험프로그램을 포함한 지역 행사, 미래 유산, 음식점, 카페 등 다양한 공주시 지역 자원을 통합적으로 소개함으로써 공주시의 로컬리즘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기존 공주밤 체험프로그램인 ‘알밤 줍기 자원봉사’ 와 같은 참여자의 자발성에 의존하던 구조적 약점을 보완하고, 공주시에 국한되었던 지역 체험프로그램의 홍보 범위를 확대하며 지역민과 외래 관광객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나아가 참여자가 프로그램 체험 이후에도 공주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

2) 행정적 측면

다음으로 행정적 측면에서는 공주시의 농산물을 체험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효과적인 활용 모델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공주시 사곡면 계실리는 2017년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시·군 창의 아이디어 사업’ 에 선정되어, 라벤더를 테마로 한 특색있는 ‘라벤더길 7’ 꽃밭을 조성하고 ‘LVND7’ 이라는 브랜드를 출시하였다. 이를 통해 라벤더 에센셜 오일과 향주머니를 개발하며 마을 단위의 자생적 발전을 도모 했지만 주민들의 고령화로 인한 인력 부족으로 사업 지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¹¹⁵⁾ 이에 공주시는 지역의 분위기를 활성화하고자 2025년 2월 ‘라벤더길 나들이’ 체험프로그램(그림 46)을 운영하였다.

115) 공주시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2023), 『2022 공주시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성과자료집』, 공주시청, pp.34-37.



<그림 46> 체험프로그램 ‘라벤더길 나들이’

출처: 불교공뉴스, <https://www.bzer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00177> (검색일: 2025.05.17.)

이 프로그램은 라벤더를 활용한 향 주머니 만들기, 라벤더 모종 심기, 보태니컬 아트, 화로 체험 등이 포함되었으며 ‘공주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¹¹⁶⁾ 해당 사업은 농촌 지역의 경제 기반을 형성하고 주민 중심의 조직이 자리 잡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단계별 공동체 성장을 통한 수익형 농촌벤처 육성, 청년 유입과 유희공간 활용 모델 구축, 농촌 기반의 미래 농업 인재 양성 등을 주요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¹¹⁷⁾

이러한 사업 구조는 공주밤 생산과 임업 환경을 포함한 공주시 농촌 자원의 지향점과도 맥락을 같이하며,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공주밤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의 필요성과도 맞닿아 있다. 예를 들어 ‘율피 블렌딩 티 클래스’에서 라벤더는 부재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현재 계실리에서는 실내용

116) 황인홍, 공주시, ‘라벤더길 나들이 떠나요~’, <https://www.bzer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00177>, 불교공뉴스 (검색일: 2025.05.17.)

117) 공주 문화관광, <https://tour.gongju.go.kr/>, (검색일: 2025.06.19.)

라벤더 오일만 제작되고 있지만 향후 식용으로 개발된다면 블렌딩 티의 재료로 확장할 수 있다. 또한 라벤더의 개화 시기인 5월 말에서 6월 사이에 맞춰 ‘라벤더길 7’ 방문이나 기존 ‘라벤더길 나들이’ 체험프로그램과 연계한 시즌형 프로그램 구성도 가능하다.

최근 지역 내에서 당일 생산·유통되는 로컬푸드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므로¹¹⁸⁾ 공주시 농산물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은 공주시만의 차별화된 농촌 먹거리 활용 모델로 발전할 수 있다. 나아가 외부 참여자의 흥미와 관심을 유도하여 농촌 체험과 지역 브랜딩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지속가능한 농촌 활성화 방향으로도 제시할 수 있다.

3) 학술적 측면

학술적 측면으로 본 연구에서 재구성된 공주밤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은 공주밤의 부산물인 율피를 체험 소재로 전환하는 제안으로 지역 자원의 재해석 및 재자원화 가능성을 보여준다. 최근 국내외적으로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다양한 정책, 연구 및 실천의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개념은 1987년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의 보고서인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에서 ‘미래 세대의 필요를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으로 정의되며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후 2015년 제70차 유엔총회에서는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Leave no one behind)’을 슬로건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수립하였으

118) 농촌진흥청, 로컬푸드 매장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https://www.rda.go.kr/middlePopOpenPopNongsaroDBView.do?no=1721&sj=%EB%A1%9C%EC%BB%AC%ED%91%B8%ED%8A%B8%20%EB%A7%A4%EC%9E%A5%EC%9D%B4%20%EA%B8%89%EA%B2%A9%ED%9E%88%20%EB%8A%98%EC%96%B4%EB%82%98%EA%B3%A0%20%EC%9E%88%EC%8A%B5%EB%8B%88%EB%8B%A4> (검색일: 2025.05.18.)

며 인간,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십이라는 5개의 영역을 중심으로 2030년까지 이행해야 할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 과제를 제시하였다.

우리나라도 2008년 「지속가능발전법」을 제정하고, 이를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하지 않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뜻하는 지속가능성 개념에 기초하여 경제 성장, 사회 안정,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발전’이라고 정의했다.¹¹⁹⁾ 이러한 국제적·국내적 흐름 속에서 본 연구가 재구성한 체험프로그램은 미래유산과 농산 부산물 활용, 지역 활성화를 연계한 실천 사례로 활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론에서 언급한 ‘공주 알밤박물관’ 같은 문화기반 시설과 연계될 경우 공주밤의 가치를 입체적으로 확장할 수 있으며 나아가 타지역의 농산 부산물에 대한 지속가능한 활용과 재해석 연구로도 이어질 수 있다. 국내에서는 연간 5조 원 규모의 못난이 농산물이 표준 규격에 미치지 못해 폐기되고 있고¹²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메탄가스 발생과 폐기물 처리 비용은 약 6조 원에 달한다.¹²¹⁾ 이러한 현실을 반영할 때 못난이 농산물을 포함해 울피, 굴껍질 등의 부산물같이 상품성이 낮아 유통되지 못하는 자원을 체험프로그램의 소재로 전환하는 것은 자원순환과 환경 부담완화 측면에서 중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 재구성한 체험프로그램은 지역 먹거리 자원을 단순한 소비 대상이 아닌 체험과 교육의 매개로 전환하여 지역 식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콘텐츠로 기능할 수 있다. 이는 향후 지역 관광자원의 재구성, 브랜딩, 환경교육, 관광 등 다양한 분야로의 확장 가능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119) 지속가능발전포털, <https://ncsd.go.kr/> (검색일: 2025.06.21.)

120) 백혜숙, 반값 농자재 반값 농산물, B.E.S.T. 정책, <https://www.m-economynews.com/news/article.html?no=51170>, M이코노미뉴스 (검색일: 2025.06.22.)

121) 이지연, [청년발언대] “못생겨도 괜찮아”...못난이 농산물의 반란, <https://www.youthdaily.co.kr/news/article.html?no=184382>, 청년일보 (검색일: 2025.05.19.)

V. 결론 및 제언

최근 공주시에서는 시의회에서 공주 알밤박물관 건립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2028년 국제 밤산업 박람회 개최를 준비하는 등 공주밤의 가치와 활용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공주밤은 이상기후와 고령화 등으로 생산 기반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브랜드 또는 가공품 소비에 머무는 경향이 있어 미래유산으로서의 문화적·교육적 가치를 전달하고 공감할 수 있는 체험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외 미래유산 사례를 조사하여 체험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영 과정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또한 2024년에 운영된 기존 공주밤 체험프로그램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공주시청 및 문화관광재단, 공주한옥마을 등 관련 기관의 공식 자료와 보도자료를 온라인을 통해 수집하고 현장 방문 조사를 병행한 후 SWOT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번 슈미트의 체험 이론에 기반하여 공주밤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을 재구성하고, 활성화 방향을 제시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례조사에서 살펴본 서울시 미래유산, 부산시 미래유산, 일본 프로젝트 미래유산의 체험프로그램은 ‘미취학 아동부터 청년까지’의 미래 세대를 참여층으로 설정하고 능동적·자발적인 참여와 현장 중심의 다각적인 체험을 유도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기존 공주밤 체험프로그램의 현황을 조사하고 SWOT 분석을 통해 내·외부 요인을 도출한 결과, 참여자가 직접 참여 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방식과 지역 문화와 식문화를 접할 수 있는 교육적 효과, 계절과 테마의 조화를 통해 높은 몰입도를 유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반면 계절과 기후에 따른 제한, 자원봉사 목적의 운영 구조로 인한 참여 동기부여의 한계, 공주밤의 지식과 가치를 전달할 기회의 부족은 약점이었다. 외부의 기회 요인

으로는 로컬·K-컬처·웰니스 등 2025년 관광 트렌드와의 연계 가능성, 공주밤이 지역의 상징으로서 지자체 및 학교와의 협력 가능성, K-콘텐츠와 연계한 활용 가능성이 존재했다. 위협 요인으로는 공주밤의 수확량과 공급 불안정으로 인한 콘텐츠 구성의 제약, 단순한 수확이나 시식 중심의 내용과 반복적 구성으로 인한 재참여 유도의 한계가 있었다.

셋째, SWOT 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기존 공주밤 체험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보완하고자 재구성하는 프로그램의 소재로 ‘올피 블렌딩 티 클래스’를 제안하였다. 이는 번 슈미트의 체험 이론에서 ‘전략적 체험모듈(SEMs)’에 따라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 (1) 올피는 공주밤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체험 소재로 지역 문화와 식문화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다. 참여자는 올피와 다양한 부재료와 함께 감각적 체험을 하게 되며, 계절이나 시즌에 맞춘 주제와 디자인에 따라 감성적 체험에 몰입할 수 있다. (2) 올피를 건조하여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어 계절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으며 여기에 공주밤 관련 이야기가 담긴 소책자를 제공하면 참여자의 인지적 이해도 높일 수 있다. (3) 올피의 재자원화는 로컬, K-콘텐츠, 미식, 웰니스, ESG 등의 최근 관광과 소비 트렌드에 부합하며, 누구나 접근할 수 있어 시청각 콘텐츠를 함께 구성할 경우 세대, 성별, 국적 등에 상관없이 지역사회와의 관계적 체험을 유도할 수 있다. (4) 가공 후 버려지는 껍질을 재활용해 공주밤 공급의 불안정을 극복하고 단순한 수확·시식 체험을 넘어 자신만의 블렌딩 티를 제작하는 행동적 체험으로 확장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다차원적 웰니스를 경험함으로써 체험에 몰입하고 기억에 오래 남는 경험을 할 수 있다.

넷째, 재구성된 체험프로그램의 목표는 SWOT MIX 전략에 따라 (1) 현장 체험과 지역 식문화를 교육적 콘텐츠로 연결해 트렌드에 맞는 감성적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2) 공주밤을 테마로 다양한 이야기를 구성해 지역의 계절감과 정서를 경험하고 재참여를 유도한다. (3) 공주시 미래유산이나 기

존 체험프로그램을 연계해 공주밤의 활용 가치를 다각적으로 확장한다. (4) 계절과 기후에 구애받지 않고 연중 지속 운영가능하도록 하여 공주시와 공주밤의 이미지를 제고한다.

다섯째, 재구성된 체험프로그램의 대상은 5~10명 규모의 MZ세대 지역민 및 외래 관광객으로 설정하였다. 이들은 체험을 통해 공주밤의 지역적 가치를 인식하고 지역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핵심 이해관계자가 될 수 있다. 체험프로그램의 내용은 오전에 공주한옥마을에서 ‘공주알밤 다식 만들기’, 오후에 ‘울피 블렌딩 티 클래스’를 진행하고 이후 참여자가 다식과 티를 함께 시음하는 일정으로 구성하였다. 운영 장소는 공주한옥마을 및 공주시 중동·반죽동·봉황동 일대를 중심으로 설정하여 접근성과 편의성을 확보하였다. 운영 방안은 번 슈미트의 체험제공수단을 기반으로 참여자 몰입도를 높이는 다양한 요소를 함께 모색하였다.

여섯째, 체험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해 운영적 측면으로는 연중 운영 가능한 계절별 구성과 MZ세대를 대상으로 SNS 기반의 홍보 전략을 통해 ‘밤의 마을 공주’ 콘셉트의 매거진 콘텐츠 계정을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행정적 측면으로는 계실리 라벤더와 같은 공주시 농산물을 활용한 자원화 모델을 통해 지역 활성화와 관광자원 확장의 가능성을 제안하였다. 학술적 측면으로는 울피를 체험 소재로 전환함으로써 지속가능성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지역 자원의 재해석 및 재자원화의 가능성을 조명하였다. 이는 자원순환과 환경 부담 완화는 물론, 지역 식문화를 활용한 교육 및 관광 콘텐츠로의 확장 가능성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미래유산은 미래 세대에게 가치를 전달하고 보전해야 할 유산으로 이를 활용하는 체험프로그램의 운영과 활성화는 중요한 과제이다. 본 연구는 국내외 미래유산 체험프로그램의 사례와 기존의 공주밤 체험프로그램 현황을 분석하고 번 슈미트의 체험 이론을 적용해 재구성된 체험프로그

램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MZ세대를 중심으로 한정된 대상 설정과 현장에서의 적용을 통한 실증연구를 진행하지 못한 점은 본 연구의 한계로 남는다. 향후 연구에서는 미취학 아동과 청소년 등 보다 다양한 계층을 포함하는 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구성된 프로그램의 구현 가능성 및 효과 검증에 관한 후속 논의도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공주문화관광재단(2021), 『2021 문화도시 공주 미래기억 시민공모』, 공고 제 2021-143호.

공주시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2023), 『2022 공주시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성과자료집』, 공주시청.

공주시의회(2024), 『공주시 미래유산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조례 제1775호.

공주시청(2022), 『공주시 미래유산 선정 고시』, 공주시 고시 제2022-117호.

글로벌엔로컬브레인파크(2022), 『공주시 2040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공주시청.

내셔널트러스트 문화유산기금(2014), 『반달할아버지 윤극영 소장품 도록』, 서울시청 문화정책과, pp.4-9.

문화유산보존과(2025), 『서울 미래유산 전체 목록(2025.1.1.기준)』, 서울정보소통광장.

번 슈미트 저, 윤경구·금은영·신원학 역(2013), 『번 슈미트의 체험 마케팅』, 김앤김북스.

公益社団法人日本ユネスコ協会連盟(2024), 『プロジェクト未来遺産2024 募集要項』, 公益社団法人日本ユネスコ協会連盟.

<논문>

김미선(2010), 문화체험을 활용한 도덕과 수업지도 방안: 6학년 4단원을 중심

- 으로,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선효(2016), 공주밤을 이용한 고추장의 영양 특성 및 활용 가능성,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49(5), pp.395-399.
- 김아현(2025), MZ세대의 소비성향을 반영한 디자인 가치가 구독 가전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정선(2024), 부산 미래유산의 제도적 한계와 가능성, *석당논총* 88, pp.427-449.
- 김현정(2020), ‘서울미래유산’ 과 일본 ‘프로젝트 미래유산’ 의 한일 비교연구, *비교일본학* 50, pp.28-39.
- 백성지(2023), 서울 미래유산의 활용과 스토리텔링 소재 개발 연구, *문화예술경영* 6, pp.17-40.
- 손진선·최배영(2023), MZ세대 여성의 차생활과 웰니스 간 연관성 연구, *차문화·산업학* 62, pp.91-121.
- 신창희(2016), 서울 미래유산의 의미와 활용 유형,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 학술대회자료집*, pp.268-270.
- 양광호(2000), 공주'밤'을 주제로 한 관광개발방향: 정안 '밤마을' 가꾸기를 중심으로, *지역개발연구논총* 8(1), pp.23-36.
- 양명식(2011), 체험 프로그램 및 사례분석에 의한 안전체험관 계획,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은영(2016), 도시의 기억을 어떻게 보존할까?: 서울미래유산 사업의 사례연구, *문화예술경영학연구* 9(2), pp.31-51.
- 최경식·신인식(2000), 밤의 유통구조 개선 방안, *지역개발연구논총* 8(1), pp.56-73.
- 황명수(2000), 공주(정안)밤의 특화전략과 밤나무 품종육성 및 재배법 개선, *지역개발연구논총* 8(1), pp.37-55.

<인터넷 사이트>

거시기 매거진 인스타그램, <https://instagram.com/geosizine>.

고구마팍, <https://gogumafarm.kr/>.

공주 문화관광, <https://www.gongju.go.kr/tour/>.

공주문화관광재단, <https://www.gongjuacc.or.kr/>.

공주시청, <https://www.gongju.go.kr>.

공주학 아카이브, <https://kjha.kongju.ac.kr>.

공주한옥마을, <https://www.gongju.go.kr/hanok/>.

구포국수 체험관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gupo.noodle>.

구포국수체험관 블로그, <https://blog.naver.com/villagekitchen>.

구현화, <https://hankyung.com/article/202408265246i>.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

국토연구원, <https://krihs.re.kr>.

길상훈, <http://www.chungnam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793750>.

김동찬, busan.go.kr/nbtnews/1357732.

김은영, busan.go.kr/globalhubcity/news/1414851.

김종술, <https://omn.kr/16gdi>.

네이버 국어사전, <https://ko.dict.naver.com>.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

네이버블로그 ‘Pixel Photographer’, <https://blog.naver.com/pixel9/>.

네이버블로그 ‘먹고 여행하고 놀기’, <https://blog.naver.com/gudang87/>.

네이버블로그 ‘미호언니 수다살롱’, <https://blog.naver.com/helpmesister/>.

노태영, <https://foodtoday.or.kr/news/article.html?no=188573>.

농촌진흥청, <https://www.rda.go.kr/>.

다정공감 공주, <https://gonggam.gongju.go.kr/homepage/>.
대전광역시 동구 블로그, <https://blog.naver.com/djdonggu/>.
디지털공주문화대전, <https://gongju.grandculture.net/gongju>.
메가커피, <https://mega-mgcoffee.com>.
문화도시공주, <https://gjccc.or.kr>.
문화비축기지 블로그, <https://blog.naver.com/culturetank>
문화유산야행, <https://gongju-culturenight.com>.
박연선,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165285&ref=A>.
백혜숙, <https://www.m-economynews.com/news/article.html?no=51170>.
부산미래유산, <https://busan.go.kr/futureheritage/>.
부산민주공원, <https://demopark.or.kr/>.
부산민주공원 블로그, https://blog.naver.com/demo_park.
빵모닝 인스타그램, <https://instagram.com/bbang.morning>.
산림청, <https://forest.go.kr>.
서울미래유산, <https://futureheritage.seoul.go.kr>.
송두범, <https://sjsori.com/news/articleView.html?idxno=71681>.
신진주, <https://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9035>.
신혜영, <https://www.sisamagaz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094>.
열린관광 모두의 여행, <https://access.visitkorea.or.kr/>.
오가노 가부키, <https://oganokabuki.com/>.
유건연, <https://nongmin.com/article/20240925500527>.
유튜브 ‘공주문화도시센터’, https://www.youtube.com/@gjccc_2021.
유환권, <http://www.d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49990>.
윤극영가옥, <https://yoonky.modoo.at/?link=b6qjhh1f>.
윤극영가옥, <https://yoonkyhouse.com/>

이건용, <https://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051321>.
이건용, <https://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075701>.
이용환, <https://newstnt.com/news/articleView.html?idxno=454204>.
이은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06480253?sid=101>.
이지연, <https://www.youthdaily.co.kr/news/article.html?no=184382>.
일본유네스코협회연맹(公益社団法人 日本ユネスコ協会連盟),
<https://unesco.or.jp>.
장인서, <https://fnnews.com/news/202503250640517245>.
전갑남, <https://www.incheonin.com/news/articleView.html?idxno=94312>.
조명휘, https://newsis.com/view/NISX20241029_0002938171.
조흥기, <https://cc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0255>.
지속가능발전포털, <https://ncsd.go.kr/>.
최용석, <https://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50415/131417566/1>.
컨슈머인사이트, <https://consumerinsight.co.kr>.
크라운제과 인스타그램, <https://instagram.com/CROWNSNS/>.
한국관광공사, <https://knto.or.kr>.
한국관광데이터랩, <https://datalab.visitkorea.or.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
해태제과, <https://ht.co.kr>.
황인홍, <https://www.bzer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00177>.
SPC삼립, <https://spcsamlip.co.kr>.

ABSTRACT

Research on Experiential Programs Utilizing Gongju Future Heritage Asset - Focused on the Gongju Chestnut -

Jooyun Lee

Korean Cultural Contents Major

Graduate School of Cultural Industry and Arts

Sungshi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highlight the identity and complex value of Gongju Chestnut as a Gongju Future Heritage Asset, and to design the experiential programs utilizing it. For this purpose, the study analyzed experiential programs from Seoul Future Heritage, Busan Future Heritage, and Japan's Heritage for the future project. Based on these case analyses and a SWOT analysis of existing Gongju Chestnut programs, a new experiential program was restructured by applying Bernd H. Schmitt's experiential marketing theory.

The main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rough a review of literature, the cultural and economic value of Gongju Chestnut as a Future Heritage was examined, and challenges in its recent production process were identified.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confirmed that effectively conveying the value of Gongju Chestnut through experiential programs is a critical task.

Second, case studies of Future Heritage experiential programs in Seoul, Busan, and Japan were conducted through both online and on-site research. The programs were compared and analyzed in terms of their background, operational status, and content.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these programs effectively engage future generations—from preschool children to young adults—through voluntary participation and field-based experiences.

Third, official documents and press materials from Gongju City Hall, Gongju Foundation of Cultural and Tourism, and Gongju Traditional Korean Village were collected online, and on-site visits were conducted to analyze the current state of existing Gongju Chestnut experiential programs. Based on this, a SWOT analysis was performed. The strengths identified included the opportunity for diverse hands-on experiences, the educational applicability of local and food culture content, and the balanced composition of programs aligned with seasonal themes. The weaknesses involved operational limitations due to seasonality and weather, heavy reliance on participant engagement with limited motivational incentives, and insufficient delivery of information related to Gongju Chestnut. The opportunities were the alignment with tourism trends in 2025, the potential for collaboration with local governments and schools, and the possibility of utilizing regional content. The threats included fluctuations in the supply of Gongju Chestnuts and limited potential for re-engagement due to the simplicity of the experience content.

Fourth, based on the SWOT analysis, this study proposed the “Blending Tea Class using chestnut inner shell” as a core component of the restructured program. Chestnut inner shell not only strengthens or complements the existing programs but also extends and enhances immersion in the experience as a material applicable to Bernd H. Schmitt’s Strategic Experiential Modules (SEMs) and Experience Providers (ExPros).

Fifth, four objectives for the restructured program were established based on the SWOT MIX strategy (SO, ST, WO, WT). The primary target group was suggested as small groups of 5 to 10 participants from the MZ generation, considering the results of case analysis, the characteristics of the

“Blending Tea Class using chestnut inner shell” and its potential for contributing to local revitalization.

Sixth, the restructured program consists of a one-day schedule: in the morning, participants make traditional Korean sweets (dasik) using Gongju Chestnut at Gongju Traditional Korean Village; in the afternoon, they participate in the “Blending Tea Class using chestnut inner shell”; and finally, they enjoy a tea-and-sweets tasting session. Program sites were selected with consideration for accessibility and ease of movement, including Gongju Traditional Korean Village and buildings located in Jung-dong, Banjuk-dong, and Bonghwang-dong near the intercity bus terminal. The program incorporated Bernd H. Schmitt’s Experience Providers to enhance participant immersion.

Seventh, for program revitalization, the study suggested diversifying content tailored to season and climate changes, and launching an SNS-based magazine targeting the MZ generation. From an administrative perspective, the program could serve as a model for integrating Gongju’s agricultural resources, including Gyesil-ri lavender. From an academic standpoint, the use of chestnut inner shell demonstrates the potential for developing sustainable experiential content.

In conclusion, Gongju Chestnut, as a sustainable Gongju Future Heritage that connects past, present, and future generations through shared value, holds strong potential for expansion and application. Accordingly, the experiential program restructured in this study should be implemented in alignment with local government policies and contemporary consumer trends to ensure its ongoing relevance and impact.